

## 취업관련 교과목 신설

### 내년부터 특강 형식으로 진행 ... 수업 들으며 취업대비

내년 1학기부터 취업관련 과목이 신설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도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취업전문가, 기업 대표·인사 담당자,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청해 매주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는 '직업탐구' 강좌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설정 △취업탐색 △입사실전 강연으로 이뤄진다.

이와 같은 취업 특강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 왔지만, 신설된 이 강좌는 학점이 인정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강연과 다르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특강은 불규칙적

로 열려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취업과목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제강연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영석(행정2)군은 "취업특강이 수업시간과 중복돼 들지 못한 적이 있다"며 학점을 인정받으며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업탐구' 강좌는 2학점으로 인정되지만, 취업정보제공이 목적인만큼 통과(P) 또는 낙제(F)로 평가해 수강생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특강형식이기 때문에 출석에 평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과제는 수강생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인 점

을 감안해 실전에 대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이 주어진다.

취업관련 교과목은 3~4년 전부터 몇몇 대학에 개설돼 학생들의 높은 참여속에 운영되고 있다. 99년 취업과목을 개설한 경희대는 100여명씩 2개반으로 시작했지만, 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 현재 전학년 대상 9개반이 열려있다.

취업자료실 새단장에 이어 관련 교과목 신설까지 최근 취업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이 늘고있는 추세다.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현실인 만큼, 이러한 학교측의 지원은 앞으로 더욱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길은 동쪽에 ...

전국 77개 대학이 참가한 '2002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지난 2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행사 도우미로 참가한 본교 학생들이 입학 요건을 설명하며 학교를 홍보하고 있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 지면안내

경주캠의 현재와 미래 6~7면



2003년 신입생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경주 캠퍼스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경주캠퍼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조는 나쁜 것인가 4면

기억상실증 원인과 치료 5면

이 시대 문학의 갈 길 11면



### Unhappy birthday to you!

김성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사람들은 생일이 되면 축하의 노래를 부른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나 이는 타인의 눈에 비친 착각이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탄생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다. '보리도차제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윤회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경우 감옥과 같은 자궁 속에서 열 달간 갇혀 있어야 한다. 앞에는 오줌이 출렁이고, 뒤는 똥이 둘러싸고 있다. 땀줄을 통해 양분이 공급되는데 그 모두가 입에 넣어 씹었던 더러운 음식들이다. 탄생의 순간이 되면 기를 틀어 넣고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 엄습한다. 좁은 출구를 통해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겨우 밖으로 나왔더니 부드러운 형질로 감싸주는데 마치 칼날이 스치듯이 아프다.

하늘나라(天上), 인간, 축생, 아귀, 지옥이라는 윤회의 세계 중 행복한 세계에 속하는 인간계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독한 탄생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노병사(老病死)의 고통이 이어진다. 하늘나라 역시 완전한 곳은 아니다. '보리도차제론'에서는 하늘나라에는 우선 '전생에 자신보다 공덕을 많이 지어 위력을 갖게 된 천신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말한다. 마치 대기업에 취직한 신입사원이 회사 밖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회사 내에서는 상사의 위압 속에서 지내듯이, 또 하늘나라에는 '죽을 때의 공포'가 있다고 말한다. 천신은 죽을 때 자신의 내생을 짐작하고 지극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을 모두 탕진해버린 천신은 죽은 후 대개 축생이나 아귀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옥과 아귀와 축생의 세계는 물론이지만 인간계와 하늘나라조차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런 자각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자 하는 해탈의 마음'이 싹트게 된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은 '위대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어야만 가능한 축복이다.

## 제2회 벤처창업대회 시상

### 대상 없이 우수 1팀·가작 3팀

제2회 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자가 가려져 지난 22일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이번 대회에서는 총 11개 팀이 참가, 우수 1팀과 가작 3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와 작품은 △우수=박주성(컴퓨터멀티미디어3)군의 웹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가작=권효상(전기4)군의 스마트 원카드 △가작=김동현(대학원 반도체과학 박사과정)군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가작=이성철(전자3)군의 캐릭터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는 대상 수상자가 없어 소호실 임주희회를 부여받은 팀은 없으며, 수상팀들은 우수 70만원, 가작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심사위원 김양우(정보통신공학) 교수는 "참가팀 모두 투자계획과 자금조달방법이 미흡해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해외대학 학술교류 협정 중국 영파·복단 대학 등

본교가 연변대학에 이어 중국 2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는다.

이번에 협정을 체결하는 대학은 영파 대학과 복단 대학이다. 협정 조인식은 중국에서 28일, 29일 각각 열리며 본교 대표로 연구처장 최순열(국어교육) 교수가 파견된다.

협정을 통해 본교는 각 대학과 △교수 및 학생 교류 △학술정보 및 자료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다음달 4일 본교에서는 일본 오타니대학과 학술교류협정 갱신조인식이 열릴 예정이다.

### 공학교육인증 획득 공대·정산대 BSM등 인정

공과대학과 정보산업대학이 지난 16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8월 영남대와 함께 국내 최초로 공학교육인증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본교는 2차례 방문평가를 거쳐 BSM등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최종 인증받았다.

### 알림

이번 제1333호가 2001학년도 2학기 종강호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334호는 2002년 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 한의학동창회 2억여원 전달 조덕래 동문 1억 800만원

한의학과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의학과 동창회가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3천100만원을 전해온데 이어, 보생조합의 원장 조덕래(한외87졸) 동문이 1억 8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24일 열린 동문회에서 한의학과 동문들은 약정한 2억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경주캠퍼스 최상범(조경학) 부총장이 500만원을, 이상희 부자가 1천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 연행록 출간기념 국제세미나 동아시아 지역학 연구 논의

한국문화연구소(소장=임기중·국어문화학)는 다음달 7일 '연행록과 동아시아 연구'를 주제로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행록 전집의 출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3부로 진행되며 2부 주제발표는 △연행록과 동아시아 지역학의 의의 제시 △한국, 중국, 일본의 연행록 연구의 현황 점검 △앞으로의 연구 전망에 대해 발표 및 보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지역학연구의 의의 및 현황을 논의함으로써 연행록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점검해보는 자리이다.

### 2001 전국대학 학생회선거 분석

## 투표율 저조·미숙한 선거운영

### 성숙된 선거문화정착과 학생참여 유도 과제로 남아

2001년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16일 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선거 역시 96년 연세대 사건 이후 지속된 '투표율 50%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4년만에 경선으로 진행된 만큼 투표율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례적 투표율이 34.7%에 그쳐 선거 무산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투표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급해진 운동원들은 강의실과 도서관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등 '투표를 올리기'에 열을 올렸고 이 결과 마지막날 15% 이상의 투표율로 선거무산 위기는 넘기게 됐다.

이후 개표결과 NL계 자주계열로 나선 주진완(국교4)·양희창(반도체3)조가 60% 이상 지지를 받아 당선됨으로써 자주 계열이 8년 연속 학생회를 이끌게 됐다.

개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각 선본 정후보자가 학

생회장을 역임한 단과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사범대에서는 갑 후보 주진완·양희창조가 86%이상 지지율을, 문과대에서는 을 후보 이재광(철4)·이동우(전기4)조가 7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단과대 이기주의'보다 후보와 학생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지지율을 높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국대학 학생회가 대부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난주까지 실시된 66개 대학 선거결과 홍익대, 전남대 등 자주 계열 44개 대학, 숙명여대, 한림대 등 좌파 계열 6개 대학, 경일대, 충주대 등 비운동권이 14개 대학에서 당선됐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자주 계열이 대거 당선됐고, 지방대학에서는 비운동권 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또한 선거와 투표 모두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단독선거가 증가했으며, 서울대 등 여러 대학이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4일

이상 투표율 진행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울산대는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지만 큰 권리찾기' 운동을 펼쳐 올해 선거에서 70%를 상회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본교와 같이 경선이 진행된 경기대는 투표기간 중 투표함이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탈취돼 폭력사태까지 치달았으며, 광주대, 명지대도 선본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인제대에서는 투표 장소를 일리로 변경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선거운영까지 보여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2001년 학생회 선거는 성숙한 선거문화정착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제는 2002년 학생회와 학생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김원정 기자  
telime@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 당신의 진성, 감춰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마감 임박!

###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시상 : 인문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평론부
- 응모요령 : 시부문 - 3편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시상 : 시부 - 장원 30만원, 가작 15만원  
소설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평론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심사위원 : 응모작품에 따라 추후 별도 위촉

▶ 제출기간 : 2001년 11월 30일까지

▶ 입상발표 : 2002년 1월 1일자 동대신문 지상

동대신문사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의의와 과제 **논단**

# 사회적 약자의 '의지할 곳'으로 자리매김

예로부터 과부와 고아, 죄인과 이방인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고 돌봐 주는 건 하느님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들을 위시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태어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유를 하자면 하느님의 법정대리인인 셈이다.

인권위는 당연히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귀로 들으며 하느님의 임으로 말해야 한다. 만약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면 부처님이나 어머니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서 인권위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모성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 감동 주는 국가기관으로

이처럼 하느님 또는 부처님과 어머니 역할을 대신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인권을 쉽게 저버리는 국민국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제인권법시대에 걸맞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역사사지의 문화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참여의 문화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권침해를 당해 숨이 콧 막힌 이들에게 부드러운 숨결을 되찾아주는 감동의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데 하나 없어 법과 당국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삶과 세상에 대한 희망마저 던져버린 힘없는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희망의 기쁨, 그리고 신뢰의 덕성을 회복시켜 주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

## 인권친화적 정책은 의무

물론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군가가 '인권'을 외칠 때는 달리 말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때다. 주먹과 돈이 없고 학식과 덕목도 통하지 않아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때다. 하지만 세상은 '없는 자'의 인권 주장에 대해 냉혹하다. 사회의 관행을 이유로, 법제의 흠결을 이유로, 구조의 제약을 이유로, 체제의 속성을 이유로 하소연과 절규를 외면하기 일쑤다.

인권위는 이 모든 핑계와 변명 안에 안주해온 다른 국가기관들과 정반대로 핑계와 변명을 단죄해야 한다. 관행도, 법제도, 구조도, 체제도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 얼마든지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을

을 설득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은 체제와 구조, 법제와 정책, 관행과 의식의 모든 결합과 관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관철되어야 함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 굳게 선 인권위는 기존의 국가기관들에게 낯설 뿐 아니라 눈엣가시 같은 모양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감시기능 때문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권위가 수사기관과 감옥, 그리고 복지시설과 정신병원을 사전정보 없이 방문, 조사할 권한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 덕분에 인권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은 인권위를 성가신 시어머니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인권위가 수행할 또하나의 감시기능은 인권의 국제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바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양식과 시각을 대변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감시자 노릇을 해야 한다.

## 타부처 견제로 준비상태 엉망

인권위의 막중한 사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들이 집중



박 노 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적으로 견제하고 저항하는 바람에 인권위의 출범상황은 엉망이다. 아직까지 시행령과 직제령이 통과되지 않은 게 단적인 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수립은 물론 직원 총원과 사무처 구성도 마냥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전혀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인권위가 출범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사정은 향후 인권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인권위가 부딪칠 문제들 역시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점을 웅변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가기관답게 인권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신에 걸맞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사지의 길이자 약자를 편드는 길이며, 존중과 관용의 길이지만 때로는 험난한 투쟁의 길이기도 하다.

# 사설

## 문학권력, 자성통해 제 길 찾도록

최근 계간 문예지를 중심으로 '문학권력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동덕여대 권성우 교수와 시인 남진우씨가 '황해문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문학권력 논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려왔다. 과거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던 이인화씨부터 최근 시민단체를 흥위병이라 몰아세운 이문열씨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문인으로서 유명세를 등에 업고 벌이는 행위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

물론 문학권력에 대한 논쟁자체는 우리 시대 문학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게다가 문학권력 행사의 부당함에 대중들이 눈뜰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학권력을 행사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다. 그들은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찰과 자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와 행동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인 스스로 자기의 문학세계를 성숙시키고 더불어 대중과 연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또 다른 성장을 이뤄야 하는 문인의 모습이 아니다. 왜곡과 아집으로 충천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대중을 농락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 문학은 결코 '작품 좀 쓴다' 하는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향유하는, 그 시대를 드러내고 대표하는 '거울'이자 '문화양식'이다. 때문에 결코 문학권력은 존재해서도 안되고, 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타파해야 한다.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한 문학권력 논쟁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먼 산 불보듯 넘길 일이 아니다. 모두 우리 시대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경주캠, 학생회사업 검증 필요

차기운 날씨와 취업난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이 학생들을 잔뜩 움츠리게 하는 요즘, 한편에서는 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를 치르기 위한 움직임으로 후끈 달아 올라 있다.

하지만 본교 경주캠 학생회와 자치기구의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추위를 한층 더 심하게 느껴지게 한다. 이유인즉 선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반면 기존의 공약사항 및 사업 계획 실행에는 별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초기에 불렀던 투지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공약이 2학기 말이 되면 점점 사그러져 이에 손을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학생회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행동해왔던 학생회를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2학기는 사업하나만 잘 치르면 된다는 생각과 성급한 선거준비가 보편적인 견해로 자리잡은 듯 하다. 선거에 임하며 있던 학생회간부들의 사퇴로 인해 학생회실은 썰렁하기 그지없으며 남아있는 간부나 사퇴한 임원이나 한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잘못에 대해 어떠한 사과의 대자보 한 장 게시한 적 없다. 소위 학생들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가는 학생회가 이러한 진대 언제까지 학생회를 외면하는 학생들을 탓하고만 있을 것인가.

기존 학생회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학생회상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개선돼야 할 것들에 대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2학기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학생회는 임기만료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 학생들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미군기지 반환협상 타결 의미

# '공허지' 54.3% 반환은 허울일 뿐 대부분 방치됐던 땅 ... 자주적 태도로 재협상 나서야

미 테러사건 이후 반미감정은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국제정치의 핵심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대 대학생 576명의 여론조사 결과 반미감정이 '높다'는 응답이 53.6%를 차지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사회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미군에 공여된 토지 7천440만평의 절반이 넘는 4천44만5천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두 나라는 주한미군 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우리 정부도 미군기지의 통폐합을 위해 의정부 등 4곳에서 75만평을 새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측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언론마저도 "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미군의 주둔환경을 개선시켜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해보다 10.4% 인상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배적인 것과 자못 다른 양상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불평등한 소과개정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 30여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를 발족해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운동을 펼쳤다. 새로 공여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정부에서도 같은 날 정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길기대회가 열렸다.

'미군 공여지 50% 이상 반환'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오랫동안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행동 김관태 사무처장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만 주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반환하기로 한 지역이 현재 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54.3%에 이르지만, 대부분 미군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에 따라 얻게되는 이익



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또한 반환대상에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매항리 사격장을 비롯해 파주 스토리 사격장, 용산기지 등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반환 대상 토지 가운데 용산기지와 매항리 사격장 등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도심지역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매항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MD 구축과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재편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가 '알아서 가는' 것이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의 지적대로 정부가 앞으로도 '자세 외교'를 계속한다면, 매년 안보회의가 개최되더라도 미군 기지의 완전 반환은 어려울 것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          |     |                          |                               |
|----------|-----|--------------------------|-------------------------------|
| 발행인      | 송석구 |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
| 편집인 겸 주간 | 김호성 | 인터넷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 부주간      | 백승선 | 이메일 ID dgupress          |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
| 편집국장     | 박상관 | 구독문의 : (02)2260-3491 · 2 | 동대신문 홈페이지                     |
| 편집장      | 김은선 |                          |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168 팩스 (054)770-2167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노조를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로 보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조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유림사람들을 통해 노조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국내 노동운동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 '생동하는 노조' 그 간절한 염원

## 노동자·시민의 풀뿌리 연대로 노동의 희망을 찾는다

노사관계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웹 부부는 이미 백여 년 전에 노동조합을 '일금노동자가 노동 및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해 조직한 항구적 단체'라 정의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개념적 정의일 뿐 아니라 다른 편으로 그 사회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이 없는, 또는 박탈당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날로 추락하는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기에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현실적 토양은 무엇인가? 그것은 산업혁명에서 먼저 일어난 영국 사회의 비인간적 노동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당시 방직산업에서는 15세 내외의 소녀들이 하루 14시간에서 18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기 일수였고 3, 4일 동안 쉬지도 않고 일만 하다가 파로사하기도 했다. 또한 '트릭시스템'이라 해서 현찰이 아닌 쿠폰 같은 것으로 임금을 받아 빵 가게에 가서 빵을 받았는데 그 속에는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 돌부스러기 같은 것이 들어 있곤 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비인간화하는 삶의 조건을 혁파하고 노동자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합법성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대개 처음에는 불법(법의) 노조 형

태로 존재하다가 투쟁 끝에 어렵사리 합법성을 인정받아 시민권을 획득한다. 당시 가장 선진적이던 영국에서조차 1850년대가 되어야 합법성이 부여되고 독일은 1918년, 미국은 1935년 노조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국도 1953년이 되어야 노조가 합법성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에 대한 법, 제도적 인정과 시민사회적 인정은 다르다. 즉 법적으로 노조가 인정되더라도 지배 계급이나 보수적 시민층은 노조에 대해 '집단지기주의'라거나 '국익을 해치는 집단'이라 비난하며 노조가 행하는 파업을 무조건 무책임한 행위라 헐뜯기 일쑤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 시민들이 대체로 노조에 대해, 그리고 노조의 파업에 대해 시민사회적 인정을 하고 있다. 예컨대 필자가 독일 유학 중이던 1992년,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으로 동네마다 일주일 이상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노조더라 '시민을 불모로 자기네들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식의 비난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숙된 사회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사회적 인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위상을 높여려는 노동조합의 부단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노조에 대해 저들의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연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 데는 사회 일반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시민과 노동자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노동조합의 노력도 중요하다.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존재가 그가 행하는 파업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은 작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삶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어떠한 분열의 경계선도 타파하는 '생동하는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밖에 없다. 대신 해고당한 사람들이 조직한 복지투쟁위원회를 통해 직원들과 연계해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삼성은 작년 3월 25일 삼성생명본사 사옥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는 외국공관에서 직선거리 100m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행법을 이용해 노조설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삼성계열사인 삼성생명, 삼성정밀화학 등은 인수되기 전 노조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한 삼성중공업도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준하는 '노동자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의 삼성전자단지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여름에 체감온도가 5, 6도까지 올라가는 곳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비밀비해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 노조 없이도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장된다는 삼성의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 노동운동의 어제와 오늘

## 노동자의 함성과 함께 한 '권리찾기'의 역사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분신자살한 노동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의 희생은 암담했던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던 최근까지, 30여 년 동안 사회적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근로조건 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부르짖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이하 노조) 운동은 70년대 이전까지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청계피복노조, 신진자동차(현대우자동차) 등 2천 500여 개의 노조가 결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 민주화 운동, 대규모 노조 결성, 대학과 연계한 현장 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던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 권력 영합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트자 87년을 기점으로 노동운동은 두 방향으로 나뉘게 되었다. 한국노총 안에서 변화를 꾀하지는 노총중심운동과 자주·민주성을 가진 다른 노조연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운동이 그것이다.

결국 95년 새로운 노조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되면서 노동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 노동운동은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부터 더 나아가 반미와 반전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운동까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출범하는 노조들은 이같은 노동운동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지난 11일 '교수도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결성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사회에 시장논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정책에 대항하고 올바른 대학개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내년 3월 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킬 예정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이하 전공련) 역시 노조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전공련은 공무원 노조 결성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노조운동은 이러한 변천과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출기차게 이어져 왔다.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는 그들을 묶어내는 법과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맥을 이어나갈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at@dongguk.edu



### 동약로 어색한 만남



"학업지도교수님 맞아? 우리 학과 교수님이 아니잖아." "확인해보니 OO학과 교수님이 지도교수님 이던데."

최근 장학금과 전과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학업지도교수와 면담을 위해 교수 연구실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단과대의 경우 올해 전공을 결정한 00학년 학생들의 학업지도교수 배정이 늦어져 1학년 때 지도교수가 전공 결정 후에도 지도를 담당하

게 됐다.

"교수님, 장학금 신청서인데요." "타 학과 학생이군, 혹시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학업지도교수와 학생은 평소 면담이 없었던 탓에 장학금 신청기간에야 첫 만남을 갖게 됐다.

일상적인 면담으로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학업지도교수제도가 이처럼 한 학기 한 번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상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처리가 늦어져 전공과 다른 학업지도교수가 배정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지도교수와 의 일회적 만남을 만들어내고 있다.

학업지도교수제도는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로 발생된 학생들의 전공선택 어려움과 다양한 진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적정한 교수 1인당 학생수·전공에 맞는

상담교수 배정 등 일상적인 상담으로 정착하기 위한 조건이 이뤄지지 않고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담이 가능한 환경조성과 함께 상담을 위해 열려있는 교수연구실, 학생들의 찾아가는 노력 등이 뒷받침될 때 학업지도교수제도가 진정한 기능을 다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 기억상실증, 레테의 강을 건넌 사람들

## 약물·정신·최면치료 병행 ...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영위

우리 삶은 기억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진행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억력이 상실된다면, 또는 기억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주제를 다룬 여러 편의 영화 중 얼마 전 개봉된 '메멘토'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 후 기억력을 15분 밖에 지속시키지 못하는 전향적 심인성 기억상실증 환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와 같은 극단적 기억 상실은 드물지만 대부분의 망각은 정상적이며, 사소한 기억 장애는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런 기억이 이뤄지는 과정, 기억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기억의 과정은 등록, 저장, 재생의 세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등록은 대뇌의 각성과 선택적 주의집중을 통해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 기억 속에 유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등록되는 단기 기억의 용량은 제한되어 보통 7±2개의 보유 능력을 가지므로, 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면 인간의 능력은 제한될 것이다. 이에 등록된 정보는 반복수행되며 변연계에 위치한 해마와 편도가 저장에 중요한 뇌 구조이다. 또한 우리가 원할 때 저장된 정보를 재생할 수 없다면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저장된 정보를 재인출하는 과정을 재생이라고 한다.

이런 세 가지 기억의 단계를 거쳐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보존하게 된다. 이 세 가지 과정 중 어

느 한 부분이라도 결손이 생기면 기억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억장애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단순한 건망증에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 심각한 기억 손상에서 영구적인 기억과 일반적 지식습득 능력까지 상실하는 치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원인으로서는 단순한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에서부터 뇌종양, 뇌혈관성질환, 치매 등 뇌에 기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과 알코올 등과 같은 약물의 남용, 그 외 영양결핍과 전신적 신체 질병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심각한 감정적 고통 경험은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부분적 혹은

전반적 기억상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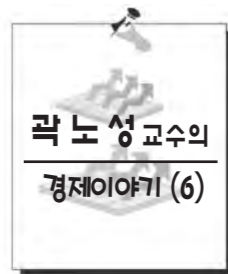


의 치료는 가장 먼저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질성 기억장애의 경우 뇌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노폐물을 제거한 후 산화를 막아 유독 물질에서 보호하고, 기억에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대사를 감소시켜 기억의 신경전달을 강화하는 방법이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또 '메멘토'의 주인공과 같이 기억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생인 심인성 기억상실증 환자의 경우는 최면과 정신치료를 시행한다. 정신치료로서 무의식으로 억압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갈등, 경험을 초월하고 정리하여 자아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적 인생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의 인격 구조와 자아 방어기제가 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숙련된 정신과 의사의 조기 개입은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망각 또한 중요하다. 만약 인간이 망각할 수 없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자신이 어렸을 때 지지른 작은 잘못,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인생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기억과 망각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고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송창진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 고학력 실업

요즘 졸업반 학생들로부터 취업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 100대 1의 경쟁은 보통이며 일부 선호되는 직장은 각종 고시, 공인회계사, MBA와 관련분야의 박사들이 다수 지원하여 대학졸업 학력만을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까지 된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을 앞둔 고학력자들의 실업은 개인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때까지 투입되는 교육시설, 공·사교육비 및 성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1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고학력 대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높은 상각율을 가진 고정자산이기 때문이다. 과학과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 고급인력이 되기 위한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20년 전 대학 졸업생이 가진 실력은 이제 보편화되어 더 이상 고급지식이 아니다. 고급지식이 그 가치를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기술인력이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기술인력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학력 대학생 실업이 한국 사회에 초래하는 비용은 미취업자 수에다가 그간의 투입비용을 곱한 액수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때까지의 이러한 감가상각비용을 합한 금액이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업문을 확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졸업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신규투자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경기가 동반 침체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미래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신규채용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공유(work sharing)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 결과 현재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는 과거 2인 혹은 3인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기업 혹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갈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유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이라는 너무도 쉬운 방법으로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직의 생산성이 조직원 1인이 창출해내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면 보다 고부가가치의 생산물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인력활용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인력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규채용을 통한 업무량의 경감과 새로운 지식의 공급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졸업인력의 기술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취업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의학 연구소 한·일 공동 심포지움

한국 당 생물 연구회가 주최하고 본교 경주캠퍼스 한의학 연구소(소장=최달영·한의학)가 후원하는 한·일 공동 심포지움이 오는 30일 한의학관 국제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당생물학과 세포전달'을 주제로 김철호(생화학) 교수와 일본 Akeami Suzuki 교수 등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 고수동정

- ▲김선근(인도철학)  
=다음달 1일 본교 문화관에서 제13회 인도철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 ▲유현우(철학)  
=내일(27일)부터 자매교류대학협정 및 동서사상연구소 교류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중국 방문.
- ▲염준근(통계학)  
=오는 2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
- ▲한상범(법학)  
=오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강단 40년 출판기념회 개최.
- ▲이재진(전자공학)  
=내일(27일)부터 싱가포르 Data Storage Institute 방문.
- ▲김세곤(경주캠퍼스 불교아동학)  
=오는 28일부터 일본 동경실천여자대학이 주최하는 '각국 대학생의 조부모란' 국제 심포지움 참가.

### 서평 - 노암 촘스키 '불량국가'

## 미 패권주의 비판하는 양심적 지성의 목소리

1963년 미국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국제법학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힘, 지위, 특권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는 국제법적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에게는 국제법의 제약을 벗어나 보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중심부를 강타한 테러에 대한 대응은 이 주장이 그저 선언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언어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노암 촘스키의 저서 '불량국가'는 미국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 유엔총회 결의안, 국제법과 관행,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 각종 국제 사회 규범들을 어떻게 위반해 왔는가를 소리 높여 고발하는 책이다. 그리고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보여 준 정치적 위선과 폭력 사용, 권력 남용 등 그동안 미국과 세계 주류 언론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주요 사건들의 진실을 생생하게 파헤쳐

비판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독재적 민주정부를 전복, 군사 독재자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중에게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미국은 △1961년 베트남 무력개입 △1975년 인도네시아군 동티모르 침공 조장 △1986년 리비아 폭격 △1998년 수단 파괴행위 △최근 이라크 폭격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폭군처럼 개입하고 행동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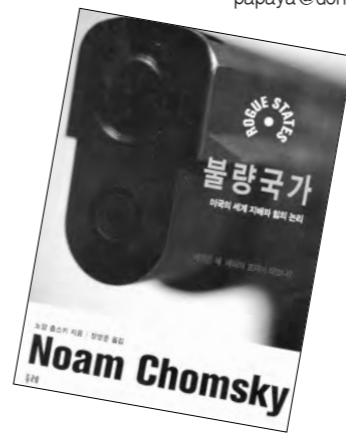
이 책에서 촘스키는 '불량국가'라는 개념을 설파된 작곡들에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과 스스로를 국제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강대국들에 적용되는 용법 두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미국이야말로 후자에 속하는 '불량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진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불량국가'에서 촘스키가 들려주는 진실은 가히 충격적이어서 쉽게 믿기 힘들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이 사건들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한다. 촘스키는 미국을 감정적으로

단죄하는 대신, 오직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미국이 자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억압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며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 세계를 변화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고통과 댓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양심이 필요하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미국과 우리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일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경주캠, 위기 넘어 발전 향해 도약하다

## 교육과정 개편 · 복지시설 확충 · 특성화 강화로 경쟁력 확보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경주캠퍼스는 지방대학과 제2캠퍼스라는 두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금 경주캠퍼스는 다양한 교육제도와 프로그램 그리고 활발한 지역 연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는 경주캠퍼스의 미래 설계는 주목할만 하다. 뿐만 아니라 불교예술과 관광을 비롯해 의학·한의학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전략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획을 통해 경주캠퍼스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편집자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종합정책은 지난 78년 수립된 이래 수도권 인구분산, 국민 교육비 부담의 비효율성 제거,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계속 보완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수도권내 대학신설과 학생증원 억제, 지방대학 중심의 증과·증원, 시설투자 지원을 지방국립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서울지역 신설대학의 지방이전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지방대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교수충원율과 내부시설 등 질적 교육 여건이나 취업률은 서울소재 대학들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 정체성 잃은 지방캠퍼스

한편 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는 행정상의 비효율성은 물론 대학구성원간의 위화감·차별의식·대립감정 등에 의해 많은 교육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과도한 전공·입학생 증원으로 질적 성장에 전념해야 할 귀중한 시간과 재정을 건물, 캠퍼스 확보 등의 투자에 소모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수도권지역 대학 캠퍼스는 물론 대도시의 위성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 학생들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러 차례 교육부 주체가 바뀌고 최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그 목표 설정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으로 교육집중화 현상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대 입학정원 미달사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

### 교육개혁으로 위기극복을

8개 단과대학과 2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 경주캠퍼스의 경우 지방 캠퍼

스·지방대 위기라는 두 가지 문제에 모두 직면해 있으나 교육과정개편과 복지시설 확충, 특성화 강화 등 많은 개혁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졸업이수학점 조정, 조기 졸업제, 다전공제 도입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개편으로 타 대학들의 관심을 끌면서 지난 96년부터 연속 3년간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후 캠퍼스간 학점교류제와 4학년 최저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올해도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명실공히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대구·울산 등 인근 지역 통학버스 운영으로 통학생들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수단 마련과 기숙사 증축,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확충으로 경주캠퍼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주캠퍼스는 지역 봉사과 지역연계 각종 행사 개최 등으로 경주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새로운 문화기관으로 성장

지난 79년 신설된 경주캠퍼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와 지방간의 균형된 발전을 가능케 하면서, 경주 지역에 정신적 문화적 보탬이 되고, 나아가 전통 문화에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경주캠퍼스가 갖추고 있는 복지·시설규모와 교육과정을 인근대학과 견주어 볼 때 지방캠퍼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큰 성장을 보이며 인지도가 높은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주캠퍼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축하는 등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지방대 육성

## 특성화 교육 구경하실래요?

세계인들의 관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시작 된 것은어제오늘 일 아니다. 한국의 불교인구는 대략 천만명. 그러나 세계적 조류와 대중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 대표국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후학 양성기관 대학에서조차 불교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대학에서 불교연구에 미흡한 것은 아니다. 특히 본교는 불교 종립학교로써 기본 이수 과목에 불교과목을 넣고 있을 뿐 아니라 경주캠퍼스에서는 불교를 통한 특성화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악과와 불교시각디자인과 그리고 불교조각과이다. 지난 95년에 신설된 국악과는 가야금이나 대금 등의 기악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타교에 비해 기악, 타악, 성악, 무용 등 전통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하고 있으며 이는 음악, 노래 그리고 춤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 국악의 특징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편 이런 국악과의 가장 큰 특색은 불교 음악과 불교무용과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졸업연주회 과정이 전통 음악과 창작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불교창

### 불교예술

작음악으로 구성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실제로 국악과 졸업생들로 이뤄진 동국국악예술단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공연 등 국내외 굵직한 행사와 국의 초청공연의 단골인 뿐만 아니라 이제껏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해오던 서울 조계사 법요식의 불교음악을 담당할 만큼 그 실력과 장르의 특이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불교시각디자인과와 불교조각과는 한국 전통문화의 전면을 차지하고 있던 불교를 재현함으로써 옛것과의 잃어버린 연결 고리를 되찾고 전통에서 이어진 현대의 조각과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학과가 개설 된지 이제 2년. 전국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두 학과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통공간 특히 사찰공간의 조각 작품에 있어 독보적 활동을 보일 것으로 기대 되는 불교조각과와 전통이미지의 관 광상화와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불교 시각디자인과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소멸 되어 가는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을 되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희망적인 관측을 하게 된다.

정미혜 기자

kai@mail.dongguk.ac.kr

현대사회를 여가사회라고 지칭할 만큼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개인과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여가 중에서도 특히 관광은 교육, 문화적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 관광대학은 2년 전 관광경영, 호텔경영, 관광레저개발학과를 포함하는 단과대학으로서 당당히 그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특히 지난 83년 관광경영학과 신설 이후 학생들의 꾸준한 호텔, 외식업체 진출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호텔경영학과는 2000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호텔과 외식업체 등을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해 졸업논문을 실습으로 대처하는 등 현장 업무를 통한 배움의 길을 터놓고 있다.

이에 하현국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학생

들이 현장 학습을 통해 다져진 실력을 호텔, 여행사, 관광 관련 업체 등 다방면으로 폭 넓게 진출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관광대 학생들의 취업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대학 설립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본교에 존재하는 관광레저개발학과

### 관광

는 레저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대로 벤처 창업 분야로의 전망이 밝다. 서태양 관광대학 학장은 "학생들이 직접 여가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해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벤처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학업 지도방향을 설명했다.

이와같이 관광, 호텔, 레저는 21세기 유망 산업인 만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의 의사소통 문제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21일 시행한 '제1회 전국 관광통역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외국어실력 증진을 통해 수준 높은 통역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행사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그밖에 관광대학은 미국의 일리노이즈 대학 관광레저학과와 학습 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자매 결연이 성사돼 더욱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길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도시 경주에 걸맞게 동국대 관광대학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라 기자

bbang@mail.dongguk.ac.kr

과학·의학 분야 차세대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본교는 지난 94년 대학 교육 개혁을 내건 이후 '의학동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의학동국은 이미 23년 전 설립된 한의 의과대학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경주한방병원 개원을 시초로 포항병원, 경주병원, 구미병원, 수동원에 분당한방병원과 강남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짧은 기간동안 대형 양·한방 병원을 갖추고 있는 매머드급 의학동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해 12월 문을 열게 되는 일산병원은 의학동국의 밝은 미래를 벌써부터 예견한다. 일산 식사동에 위치할 의과대·한의과대 부속 일산병원은 연면적 2만7천 평에 지하 2층과 지상 12층 규모로 모두 1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양·한방 종합 병원이다.

한편, 동국의학 시대의 꿈이 영글어 가면서 교과과정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의과대는 학생 각자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과 학습발표를 거쳐

는 문제중심 학습도의 원. 수업방식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 과목의 학습시간을 연장해 현장실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국가고시 합격률 향상을 위해 4학년 특강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 의과대학의 발전과 동시에 한의과 대학의 활약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본교 특유의 자유로운 학풍은 다양한 스타

### 한·의학

디 그룹 결성으로 이어져 스스로 한의학을 공부하도록 이끌고 있다.

지난해 한의과 대학을 갈타했던 허준 열풍은 본교 한의대를 전국 11개의 한의대 중 으뜸으로 올려놓았다. 경희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본교 한의대의 명성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얼마 전 한의과 학생들이 해부학 발전을 위해 시신기증 운동을 벌였던 것은

동국한의를 주목하게 한 일로 기억된다. 이와 관련해 최달영 한의대 학장은 본교 한의대생들을 "한의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동국 한의만의 학문을 지켜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본교 의대·한의대 입시결과는 수능 성적 3백90점 이상 고득점자가 88.7%나 대거 탈락하면서 동국한의학의 미래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교 의대·한의대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타 학교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교육·연구·진료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의 연구·진료를 집중 지원해 동국한의학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동국한의학의 시대'가 다가온다. 앞으로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학동국의 특성이 발휘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 경주캠 발전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

#### 교수지도책임제

## 교수연구 참여 통한 전문인력 배양

각 대학간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본교는 △교수·학생 연구 프로젝트

대표적 시스템인 '졸업자적 실험 보고서'는 의학·공학 계열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졸업 논문만 제출하면 졸업할 수 있었던 과거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가 지정한 일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은 1년 이상의 실험을 통해야만 논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교수들은 학생들을 교수 연구에 참여시켜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하면 학생들 논문의 질적 향상과 지식 함양에 기여

하고 있다. 한 예로 컴퓨터과학의 한 4학년 학생은 2학년부터 교수 연구 지도에 참여해 매주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앞둔 요즘 이메일 남북변환시스템을 개발

하였다고 한다. 또한 본교는 교수연구 업적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통한 '특정 분야 전문 학생 만들기'

에 주력하고 있다. 중점 사업으로는 대학교수해방연구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해외파견지원에서 방문연구지원으로의 개념 전환을 토대로 방문연구의 효율성을 통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방문연구 정착화는 교수의 해외 연구 환경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교수업적 향상을 이끌어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편 본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같은 여러 정부지원단체의 지방대 육성 지원사업 신청에 뛰어들어 본교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가 하면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교원의 연구역량 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본교는 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타 대학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자 할 것으로 보인다.

형진우 기자  
premier@mail.dongguk.ac.kr



추진 △교수연구 업적중심의 교육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수 지도를 기초로 한 학생 연구 프로젝트는 학부제 실시 초기인 지난 95년경 도입됐다.

본교는 학부제의 결함으로 일컬어지는 '기초 학문 육성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 교육제도

## 교육의 질 향상 위해 끊임없는 교육개혁

본교는 지난 95년부터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의 교육제도를 학생중심으로 새로이 바꾸고 정비해 왔다.

부터 3년 간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교육개혁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본교는 세계가 하나되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 3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교육개혁을 시도해 왔다.

그 첫 번째로 전편일률적이고 특성 없는 대학을 특성화, 다양화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문간 장벽을 없애고 학생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학문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타 대학이나 외국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하여 학문의 자기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 아래 본교는 지난 95년부터 140학점으로 제한된 졸업소요 학점을 120학점까지 대학별로 자율화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내 학과 벽을 낮추어 학생이 어느 학과에 지망하던 원하는 전공을 여러 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전공 선택 및 다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학기까지 졸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제를 시행하였으며 성적만으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다시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과제도도 확대하는 등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왔다.

이밖에도 재수강제, 계절 학기 등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추구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신설한 캠퍼스간 학점 교류제로 인해 서울과 경주캠퍼스 학생들이 최대 1년 동안 학점을 교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주 캠퍼스 학생들의 수도권 취업기회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학점 교류는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계 15개국 45개 대학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교수 및 학생을 교환하는 등 해외로도 그 발판을 넓혀 가고 있다. 본교 교육제도는 교수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좀더 합리적인 교육제도 구축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그러나 학생들의 전공선택 폭을 넓혀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학부제는 학생회 붕괴, 선배후배간의 단절, 전공선택의 혼란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본교는 과거 교육제도의 변화를 피하며 효율적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주도해 왔다. 지속적인 개혁의 성과로 본교는 지난 96년

#### 지역과의 연계

##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동국의 모습

매년 수능이 끝나면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 대신 분주해지는 곳이 있다.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교분투하는 각 대

도에 따라 나타나는 대학 이미지 확보와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는 대학 경쟁력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

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21C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경제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지역 시민들의 재교육을 위해 사회문화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 98년 신설된 이후로 이미 2천 5백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번 학기에도 7백 60여명의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교육원의 재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학기가 지남에 따라 교육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김용택(사회복지학)사회문화교육원장은 "현재 개설된 47개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민들이 바라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부 과정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등 지역

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97년부터 시작된 참사람 봉사단의 의료와 농촌봉사활동은 경주 전역의 사회기관 17~20곳은 물론 일반 농가와 병원까지 고루 분포돼 미약한 힘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특별열람증을 발부해 부분적이거나 개방을 시도하고있다.

경주는 여타 도시에 비하여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학교와 지역사이에 긴밀한 연계를 꾸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의 발전은 사람들의 유입을 의미하며 그것은 지역 대학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대학은 지역 발전을 돕음으로써 스스로의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본교 벤처보육센터의 몇몇 벤처기업체 경주의 지역 시장으로 진출했다. 이것은 시민 교육과 봉사에 이어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더욱더 긴밀한 지역연계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동국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정미혜 기자  
kal@mail.dongguk.ac.kr



학이 바로 그곳. 바야흐로 대학 간 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흔히 대학의 3대 기능을 교육, 연구 그리고 지역 봉사로 나눈다. 이 가운데 대학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조건인 교육과 연구라면 충분 조건은 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충분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차이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봉사 즉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정

#### 특별좌담회

##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 구축

### 특성화통한 차별화 ...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난 25일 총장실에서 김영재(경영학) 기획처장, 변정용(컴퓨터학) 교무처장, 이갑득(화학) 학생처장, 신일식 사무처장, 이준배 정보관리실 팀장이 모인 가운데 경주캠퍼스 발전 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편집자

사회자=비싼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어 감사드립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지속속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교 경주캠퍼스에 처한 현황은 어떠한지 말해달라. 기획처장=앞으로 수험생 부족 현상에 따라 대학간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천 3년에는 대학입학정원보다 수험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간의 경쟁은 필수 불가결하다. 경주 캠퍼스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 지속적인 학교홍보와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교육개혁 최우수 대학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내 본교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사회자=그렇다면 본교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획처장=기본적으로 입시경쟁력 강화를 피하는 것이 결국 경주캠퍼스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처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력강화와 관련해 캠퍼스 규정 및 위원회 운영 제도를 본 캠퍼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 맞는 입학전형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과 위원회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이다.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2천4년까지 실험기자재 확충 및 강의실 보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우수교원 초빙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의 우수교원을 초빙해 학업지도와 우수한 연구업적을 통해 본교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광고 매체를 이용한 대외홍보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본교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무처장=교무처 또한 네 가지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선 첫째로 입시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고교 진학부장 교사들을 본교의 입시전형제도 개발 및 평가, 입시홍보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 현실성 있는 전형제도와 홍보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홍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고교 3학년 학생들만이 대상이 되었던 것을 탈피해 고교 1·2학년생들까지 넓히고 '예비대학'을 개최하여 본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교로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교직원 1인 1개 고교 전담 홍보제를 시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직원이 관련 있는 고교나 모교를 위주로 홍보고교를 직접 전담하는 것으로 홍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캠퍼스와의 학점 교류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방대학으로서 본교는 서울 소재 본교를 뺀 것이 지역의 타 대학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이를 심본 활용할 예정이다.

학생처장=학생처의 경우 해결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우수학생의 유치 둘째, 교육환경 개선 및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셋째, 취업에 대한 홍보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취업홍보에 대해 몇 가지를 더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로 각 학과와 관련된 기업체를 발굴, 경주캠퍼스 실정에 맞는 영남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것이고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및 기술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특강개설과 책자를 제작해 학생 개개인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무처장=사무처의 경우 현재 통학버스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통학버스와 함께 중점을 두는 부분이 기숙사 신축으로 차후 기숙사가 신축되면 6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9백여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신축으로 총 1천5백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천3년 7월말이 완공예정일로 이를 통해 수험생

유치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관리팀장=정보관리실의 주업무는 지금까지 각 처에서 맡았던 것들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웹을 통한 서비스를 대폭개선했 예정이며, 얼마 전 본교 홈페이지를 개편한바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젊은 세대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핸드폰이 필수인점을 감안해 합격자 발표나 추가합격의 경우 학생 개개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통보해주는 형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기비트망을 오는 2천2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사회자=타 지방대의 경우 위기극복방안으로 특성화를 준비중인데 본교는 어떤 특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기획처장=본교의 성지로서 세계적 관광지인 경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4가지 특성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첫째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불교와 신라문화를 기반으로 사상·어문학·불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분야를 특성화해 연구지원과 관련된자료 연구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전문인 양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지식인 양성 등 정보 산업 분야의 특성화를 계획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에 정보통신공학 전공을 신설했으며, 2천2년에는 멀티미디어 전공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IT교육의 강화, 최신기자재 구입 등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셋째, 천년고도 경주를 기반으로 한 관광분야의 특성화로 지난해 관광대학을 신설하고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와 더불어 관광레저개발전공을 신설했다. 앞으로 관련 전공 실습실 확충,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관광통역 경진대회개최, 산학협력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본교는 한·양방협진의 의료분야로 한의과 대학과 의과대학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장점을 접목하여 협진의료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각 처에서 2천2년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기획처장=올해 주요 추진 업무는 주요 대학 캠퍼스 운영실태 조사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양교육분야 평가 업무였다. 이번 해에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2천2학년도에는 향후 본 캠퍼스의 운영 개선에 참고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교무처장=학생선발민감이나 향후 교육은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경주캠퍼스의 문호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학생들의 발표력 부족과 수업자체의 휴강 및 결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준비하고, 수업의 휴강 및 결강 후 보강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중이다.

학생처장=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안 내 홈페이지와 취업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교직원들과 각 학과단위에서 발굴한 연구기업을 집중 관리, 기업체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부 구직정보를 통해 기업체와 학생이 일대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무처장=교육환경 개선과 본교 내실화에 중점을 가할 예정이다. 2천2년까지 모든 핵심성 교재, 강의실에 냉·난방 시설 설치등을 계획중이다. 현재 학교에서 5개년 계획으로 실험실습비가 특별 배당되어 있는데 이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사용하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영상강의실 확충방향을 갖고 있다.

정보관리팀장=정보 인프라 구축을 빠른 시일내에 이뤄낼 것이다. 또한 항상 문제시 되어왔던 수강신청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컴퓨터 교육인 중점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IT전문 자격 코스 강좌를 개설해 3·4학년을 대상으로 2~3개월간 수료하도록 한 후, 학생들이 총장명의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리·사회=박현호 기자  
blue@mail.dongguk.ac.kr

소나기

입시홍보, 재학생이 말한다



△부산출신 새내기들~  
스쿨버스 생겼으니 많이 오요.  
△조만간 우리학교는 신화창조를 할 것이다.  
변해가는 동국, 알찬 동국, 참신한 새내기.  
△다년간 교육에 입했던 동국학원 기다려라.  
100주년 기념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능 디플레, 학교는 인플레, 우리는?  
△서울과 경주는 하나!  
우리는 동국, 여기는 지방캠~  
지방캠이 살수 있는 방안은 오로지 새내기의 선택!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동국인이기에 산다고 하지요.  
△입시철을 맞이하여 입학원서를 고교 후배들에게 보냅니다.  
△학교는 어찌되었건 학생만 잘하면 일류대 부럽지 않다.  
△2001 최우수 대학 선정 우리학교 최고.  
△인문학의 지존, 모든 인문학은 동국을 통한다.  
△우리 학교로 오세요.  
△우리 학교를 부탁해. 고양이도 부탁해봐~  
△02학번아, 놀자.  
△현 고3학생들, 대학을 가야한다.  
갈 것이면 우리학교로...  
△동국의 밝은 미래가 보여요.  
△대학은 지식의 총체, 우리학교가 도와주마.  
△고단했던 고3 수험생활, 우리학교로 와 모든 걸 풀어버려라.  
△꿈꾸던 대학생활, 우리 학교에서 이뤄봐요.  
△남자친구, 동아리, 학과 공부... 난 동국대에서 해낼 수 있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너무 너무 좋아요.  
△당신의 인생, 대학시절이 중요하단 걸 아신다면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시 8:1의 놀라운 경쟁률. △좋은 교수가 많으니 학교 이미지를 쇄신해 보자~  
△길은 동쪽에 있다(?)  
우리 학교는 중심에 있는데...  
△우리학교의 참모습을 알리고 싶단. 건물이 전부는 아니건만...  
△연예인만 내세운다고 다는 아닌데. △너에게 동국을 보낸다~!  
△연예인도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 TV에 학교 좀 자주 내보냅니다!  
△전지현을 활용해 주세요.  
△우리 학교도 건대처럼 홍보비용 무한대였으면.

오늘의 이슈

이홍범 (공과대 기계4)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총감독'

"모두가 즐기는 축제같은 선거 꿈꿔요"

캠퍼스에 낙엽이 하나, 둘 쌓여갈 때쯤 학교는 설레임과 분주함으로 들뜨기 시작한다.  
2001년 11월, 동약은 가을이 돌아오듯 자연스레 또 한번의 선거를 맞이했다. 그리고 각 선거운동본부의 치열한 홍보 세례로 떠들썩했던 그 한편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중선위)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부분 총대의원들로 구성된 중선위는 일정공고부터 당선자 공고까지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선거의 총감독이다.  
"저희에게 참 예민한 기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 끝났네요."  
시원섭섭한 듯 소감을 말하는 이홍범(기계4)군. 그는 중선위를 2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총감독직의 '감독'이다. 99년 총대의원회 사무국장이 된 후 올해까지 3년째 중선위에서

일하 있는 이군은 선거의 틀을 잡는 일을 하고 있다"며 간단하게 자신과 중선위를 소개한다. 그러나 '불'을 만들고 무언가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말처럼 쉽고 간단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엔 90년대 선거기록을 모두 꺼내 공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서에 얽매기보다 직접 부딪쳐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선거의 주인인 '학생'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구요."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쌓아온 그의 선거철학이다. 관례적으로 중선위가 대부분 총대의원들로 구성되었던 것을 탈피해 올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선위위원 모집광고를 낸 것은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한 무효처리 방



지를 위해,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인주를 스템프로 바꾼 것과 투표용지의 공간배치를 새로 디자인 한 것 역시 그의 '학생' 중심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학생회 선거가 '그들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는 이홍범군. 비록 중선위원 모집에 응한 학생이 단 한사람도 없었고 4년 만에 치러진 경선조차 절반을 겨우 넘긴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열린 선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학생회 선거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운동장시설 개선 시급

나는 축구와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해 운동장에서 자주 운동을 즐긴다. 그러나 운동을 할 때마다 경주캠 운동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 옷 갈아입을 장소가 마땅히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커룸이 있기는 하지만 몇몇 동아리의 톨모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해 스탠드나 운동장 구석, 나무 사이에서 옷을 갈아 입어야한다. 조그만 탈의실이라도 있으면 해소될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문쪽 수도시설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이 나오지 않아 정문쪽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도 씻기 위해 반대쪽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씻지도 못한 채 돌아가며 가까이에 수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고 싶어도 씻을 수 없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날씨도 추워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겠지만 운동을 하는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작은 일이지만 신경을 써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기람 (성경대1)

영화평 I - 물랑루즈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겨울. 나는 다형스럽게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을 만났다.  
'물랑루즈'. 뜻도 모르는 생소한 영화제목에 선뜻 보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즈음, 동아리 언니가 나에게 그 영화를 꼭 보러 가라고 적극 추천해 주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치 시를 읊는 듯이 그렇게 영화는 시작되었다. 언뜻 보면 화려한 영상과 음악, 화려한 화면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정

가슴 따뜻한 사랑 영화

만화처럼 순수하고 서정적인 장면과 잘 어우러진 한편의 뮤지컬이었다. 어쩌면 뻔하다고도 할 지 모르나, 물랑루즈는 너무 많은 사랑 에피소드 무뎠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일깨워 줬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사랑이 아무리 흔하고, 우리의 일상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주미 (공과대1)

영화평 II - 킬러들의 수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 탁월한 마케팅과 광고로 성공한 영화들이 대부분이다. '킬러들의 수다' 역시 사람들의 급진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광고로 성공을 거둔 영화이다.  
'킬러들의 수다'는 킬러들의 어두운 면을 다룬 영화가 아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면과 코믹한 면을 다루면서 무서울수 있는 소재로 사람들의 '히'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었다. 하지만 '킬러'들에 대해 너

윤리적인 면 고려해야

무 쉽게 친근하고 거부감 없는 인물로 묘사한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새겨졌을지 걱정이 된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이 변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금기'임이 결코 변해서는 안된다.  
충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만큼 성공을 거둔 작품이지만 영화들 만드는 사람들이나 관객들은 윤리적인 면을 저버려서는 안되겠다.  
차승배 (공과대1)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노동현실 관심 갖게 해

해마다 5월 1일은 May day(노동자의 날)다. 올 May day 때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노동현실, 솔직한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들을 포함한 민중들의 고통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호 4면 기사를 읽었을 때 실제적이었고, 지금의 노동현실이 어떠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우리는 학생이지만 대부분이 언젠가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앞으로도 노동현실을 다루었던 기사에서처럼 단순히 사실을 알게 해 주는 단계에서 나아가 '사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해 주기 바란다.  
한민정 (사과대1)



(제1332호 11월 19일자)

자연 돌아보는 계기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환경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점점 더럽혀지고 있다. '작은 휴지 조각 하나쯤이야, 개미 한 마리쯤이야'하는 생각이 우리 자연을 변화,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이기심에 치우쳐 자연을 생각 하지 않는 시점에서 지난해 학술면에 실린 인류 영향으로 인한 대량 멸종 시기 예측 기사는 우리들에게 자연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상당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가 아닌 내가 보호할 수 있게 내가 실천하는 자연보호를 통해 지구 생물과 공존공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수현 (인문대1)

힘든 가운데 느끼는 보람

요즘 같은 가을 천천히 서울캠 동약을 거닐다 보면 1학년 때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선배, 동기들과 밤 늦게까지 따뭇하며 마당극 공연 연습하던 일 말이다.  
사람들과 다같이 토론하고, 대본 창작도 하고 한 편의 마당극을 만들기 위해 참 많이 힘들었다. 당시 연출이었던 기훈이 형의 '다시!' 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자잘대로 지친 몸을 또 다시 움직여야만 했다.  
그래도 늦게까지 연습을 마치고 돌아 리방을 나갈 때는 뿌듯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탈에 미친, 마당극에 미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마당극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연습하기를 약 한달, 어느새 공연 날이 다가왔다. 학생회관 앞에 발판이 놓이고 사람들은 막바지 연습으로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인다. 언제 힘들었는 듯 모두 행복한 모습의 사람들.  
공연 바로 전에 막걸리 한잔으로 긴장을 달래고 갈비를 하며 동약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고사가 끝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무대 위에서 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점점 내가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무대에 나가면 이내 동그렇게 앉아 우리를 보고 있는 관중들이 눈에 들어온

다. 박수를 치면서 호응해 주는 학생들. 지금도 공연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온다. 그리고 행복해진다.  
최창민 (사과대 사회2)

경주캠 식당 위생문제 심각

나는 지취를 하고 있느니라 학교 식당을 잘 이용하는 편이다. 학교 수업이 있는 날,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한끼는 이곳에서 해결을 할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현재 학교 식당들의 음식은 가격이나 맛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한 각 식당의 위생상태에 관한 대자보를 본다면 "이제는 위생까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더욱이 내가 오늘 겪은 황당한 사건은 학교 식당의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했다.  
후배들과 도서관에서 떡국을 한참 먹고 있던 중 평소 없던 어묵이 들어 있음을 발견했지만 한참을 유심히 들여보던 나는 그것이 플라스틱 식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앞 글자는 국물에 우려져 다 벗겨지고 본래의 투명한 플라스틱만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식당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실이다.  
윤우섭 (관과대 관경2)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41기 은선 현중 윤미 은영 형의 퇴임을 축하합니다. 가시기 전에 박사 주세요~ 꼬오욱!  
△29일은 경영학과 00학번 문경화의 생일입니다. 그날 만나시면 생일빵 해주세요~  
△수학교육과 '늘푸른나무'와 '휘날림'의 연합공연이 아주 잘되었습니다. 축하축하~  
-5학년  
△43대 동국문화회 시분과장 성격파탄, 소란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문과 은아의 2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은아를 사랑하는 친구들  
△경제학과 96박지현, 통계학과 00최하나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종수, 힘지훈  
△천기야 대학원 진학 축하해!  
△효진아 생일축하해. -지영  
△두연군 생일축하해요. 오래살아~  
△역적모임 탄생 축하~  
△인배와 동시이의 학군단 합격을 축하합니다. -란, 아, 성, 홍  
△김우진군의 치질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축하합니다.  
△역사교육과의 새로운 언련부장 배미!!! 축하해~ -작년에 떨어진 끈

△공과대 민족 3반 변윤수군 미팅녀에게 에프터 신청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A양  
△덕수, 회창 생일 축하한다. 내년도 열심히 살자구나. -진완  
△23일날 음샘 공연 했네요. 축하축하. -바부  
△노송철 제대를 축하해. -WC  
△특전형 예비군 훈련 축하해요. 생일도 축하드려요. -VM  
△경속 생일 축하해. 너의 사랑 원철  
△아리랑 2학기 공연 축하해요. -미연  
△한수형 생일 축하해.  
△예비 소위 김기형 학군장교 불은 것을 축하합니다.  
△리나! 21살된 것 축하한다.  
△이상지 공연 무사히 마친거 축하하구  
조금밖에 못봐서 미안하다...  
△민지야 시극 무사히 끝냈거 축하해!  
△오사마 어우동 윤숙아! 스무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Ssangil 일동  
△동국문화회, 시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4대 동국문화회도 힘차게 세워 나갑시다. -3순  
△아리랑! 공연하느라 수고했다. -Ssami  
△편사 여러번 수고하셨습니다.  
-D-27일 남은 예비군버리  
△명경아 1년동안 수고 많았다.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명은  
△원철 여행갔다 오느라 수고했다. -VM  
△DUBS 올해 막방까지 최선을... 화이팅!  
△현중, 윤미, 은선, 은영아! 3년동안 정말정말 수고 많았다. -영이가  
△41기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하십시오  
△현여울 25기 여러분! 오디션이 얼마 안 남았네요. 끝까지 열심히!!  
△S.M&M.H 공부좀 해서 널널하게 전과 성공하자!  
△13기 아너리 품물학교 열심히 합시다!  
△역교 34대 집행부 열심히 합시다.  
-명경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범대 4학년 선배님들 마무리 잘 하시고 행운을 빕니다.  
-33대 시장  
△기말고사 기간, 우리모두 열심히~!  
△포트리스 세계최강을 향하여 열심히 합시다. -"열변"

그리고...

△역사교육과 4학년 언니 오빠들!! 임용고사 전원 합격하세요. -승애  
△역교과 여복협 파이팅~  
△김진 실망이야~ 어디서 바람이야! 이 바람돌이야~

만방급

축하합니다

△강정현 생일 축하한다.  
△개통아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선이랑 사귀게 된 것도 축하!! -988  
△27일 한진희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한다.  
△중환 오빠~ 취업 축하해요!! -MBA  
△창우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이쁘니까  
△준섭이, 명경오빠, 진호오빠 생일 축하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두 여인이  
△호우회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축하. -J  
△상경대 A반 20112293 김OO 지갑 찾은 거 축하한다.  
-youth hostel  
△가자야, 어리버리아, 이코야 축하해. -이드 10000원 돌파  
△SKY ROTC 합격 축하 한마디~ 글구 다리 빨랑 나이라. -차차  
△마백이랑 지은이 400일 축하해요. -안·공 성건희  
△20일 불교학과 2학년 주영아 생일 많이 축하한다.

△23일 오은주 생일 축하. -인영2  
△이쁜 회정아와 멋진 원영이의 500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11월 19일 호국과 서번 생일 축하한다.  
△은주♡형주 FOREVER.  
△20일 주영이 생일 축하. -불꽃놀이 동화  
△DOLPHINS 한 장군~ 11월 27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훈이형! 1년동안 학회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동  
△국동이 형도 수고 많았어요~ 국동짱!  
-02학년 후배!  
△재운이형 학회장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  
△혜경언니 지만오빠야~ 우리 인문대 실천단 인구를 추운데 너무 고생했구요. 짜수 식문인 화팅!  
-겨사  
△불·풍 친구를 만들기 하느라 수고~  
△세훈이형 수고 많았어요. 한해동안~ 그래도 우리 올해 여름 우레만 잊지 말고 살아요.  
△고전음악 감상실 식구들 올해 정말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광원  
△EBA 아그들 정말 수고 많았다. -큰형  
△형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호세 살아요.  
△고전음악 감상실 식구들 올해 정말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광원  
△EBA 아그들 정말 수고 많았다. -큰형  
△형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호세 살아요.  
△고전음악 감상실 식구들 올해 정말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광원  
△EBA 아그들 정말 수고 많았다. -큰형  
△형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호세 살아요.

많으셨습니다. -일동  
열심히하십시오  
△겨·사 여러분 기말고사 공부합시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품도 맘도 추운 솔로 친구들이 열심히 살자. -S.H.J  
△상경대 A반 20112311 김정양! 정·산가서 열심히 하자.  
-백성탐에 있는 코끼리  
△오빠~♡ 서울 가서도 열심히 해. 나 역시 부끄럽지 않은 오빠 사람이 될게. 우리사랑 화이팅~ -지니  
△고적 사진전 화팅!  
△날리리 무림이여 국시 잘하세요! -환장  
△가교과 팔레미들이 임용시험 잘 바라.  
그리고...  
△태훈이형 통일이형 자주 못 들어가서 죄송해요. 관음404호 파이팅!  
-환  
△112학군단 19의 40기여 얼마 안 남았구려, 마무리 잘하세요. -중  
△원효관 4층 자판기 좀 설치해주세요!  
△황정희! 얼굴 한번 보자, 연락해.  
△더불어 사는 사회! 제발 포스터(홍보물) 떼지 마십시오. -song D.K  
△ANT! I love you.  
△사랑해 정우야! -짜찌 주영이가  
△은화, 정은, 주원아 부디 정 떼다는 말은 하지마라. -김홍문

우리를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 교양과목 성적 차별제

찬성

반대

높은 점수 대부분  
고학년에게  
집중되는 것이 문제

제도 도입조차  
모르는 학생 태반  
의견수렴 선행돼야

교양 수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갖 대학에 온 학생들이 대학 수업에 대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저학년들은 아직 고학년들에 비해 교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언어 영역 문제지를 퍼주고 이 시의 주제는 이런 것이라하고 외우기만 하다가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 보니 선배들은 매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회학 개론'을 듣고 '예술론'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에게 한참 밀리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가 평가받아야 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한 교수님의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수업에서 얼마나 많은 교양을 쌓았나 하는 것이지, 나의 교양이 이렇게 높으니 칭찬 받을만한지, 아닌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3, 4학년들이 1, 2학년을 위한 교양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막

을 수는 없다. 1, 2학년때 피쳐 못할 정도로 교양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성적을 보완할 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부터 '교양과목 성적 차별제'가 실시됐다. 고학년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난 학기 1학년 전공 수업에서 고학년들이 높은 점수를 모두 차지하는 바람에 좌절했던 나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작품에 있어서는 도저히 선배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이다.

비단 전공 수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지식이 차이를 보이는 상태에서 교양 수업 결과를 함께 평가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일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교양 과목 성적 차별 제도에 찬성한다.

이현주 (예술대 문창1)

처음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들었을 때 설마 했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수강신청처에 "※참고사항 : 저학년과목을 고학년이 이수하는 경우 별도로 상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 하나로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학교측이 '우린 공자했으니, 너들은 따르면 된다'식의 태도를 취하는 데는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다.

먼저 성적은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지금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성적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수님의 고유 권한인데도 이에 학년별 차이를 두라는 학교측의 주장은 지나친 월권 행위이다.

다음으로 교양강좌는 학년별 과정이 아

닌 만큼 학년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제도의 도입은 교양강좌 개설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2학년 전공강좌는 전공공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과목들이므로, 이때 전공을 많이 들어두어야만 전공을 살릴 수 있는데도 2학년 때까지 교양위주로 듣고 3, 4학년은 전공위주로 들으란 것은 기초 없이 탑을 쌓으란 것과 같다.

끝으로 학교측에서 밝힌 것처럼 고학년의 전공기피가 문제가 된다면, 이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도입한 학부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고학년에게 1학년 교양필수과목 수강과 재수강시의 학점제한을 하거나, 전공필수과목 도입 등 방법으로 1학년수업에 대한 고학년 수강을 막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기호 (공과대 전자3)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 얼린글터

### 특별기고 - 한국의 테러 대응책

# 안전지대 없는 '테러' 위협에 대응책 필요

## 대테러 기본법 제정 · 프로그램 개발 · 협력체제 강화 등

현재 테러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71개국에 567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들의 대외정책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대테러 정책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1976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대테러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테러 정책에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일어난 미국의 동시타발 테러사건으로 정부에서도 대테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도 대통령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 대테러에 대한 조직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성이나 미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 내에서 폭탄테러, 세균살포, 사이버 테러 등 테러 발생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대테러기본법의 제정이다. 우리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규정이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테러행위에 대비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인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 전담기구의 설치, 관련부처간의 공조체제, 테러진압의 방법과 절차, 권한의 남용방지, 테러범의 처벌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대테러 프로그램 개발이다.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단계와 사후 작전단계로 구분된다. 사전예방단계는 테러정보수집, 위험분석, 계획수립, 교육훈련활동 등이며, 사후작전단계는 신속한 사건처리, 통신체계구축,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및 배분, 결과분석 및 평가 등이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대테러 능력의 강화이다. 대테러 활동의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전문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출입국관리 및 보안 검색의 기

술적 보강, 즉 위조여권 식별능력, 폭발물 등 위험물질의 탐지능력, 테러용의자의 검색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총포, 화약류 등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또한 대테러 요원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모의훈련 등 전문교육훈련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테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무엇보다도 테러범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고의 제고는 물론 테러를 당했을 때의 생존전략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강화이다. 테러에 대한 예방 및 사건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간 상호 수사공조와 범죄자인도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테러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은 물론 대테러응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테러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란 없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사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일찍 끝내고 경우, 포항 지역 병원에 실습을 나간다.

새벽 5시경에 일어나는 것은 다만사고 저녁 시간에 병원을 나가기도 한다. 실습할 병원이 포항일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1시간 가량을 가야만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실습이 3, 4일 동안 계속되면 함께 실습을 받는 친구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하다. 친구들과끼리 모여 이야기를 할 때 짜증을 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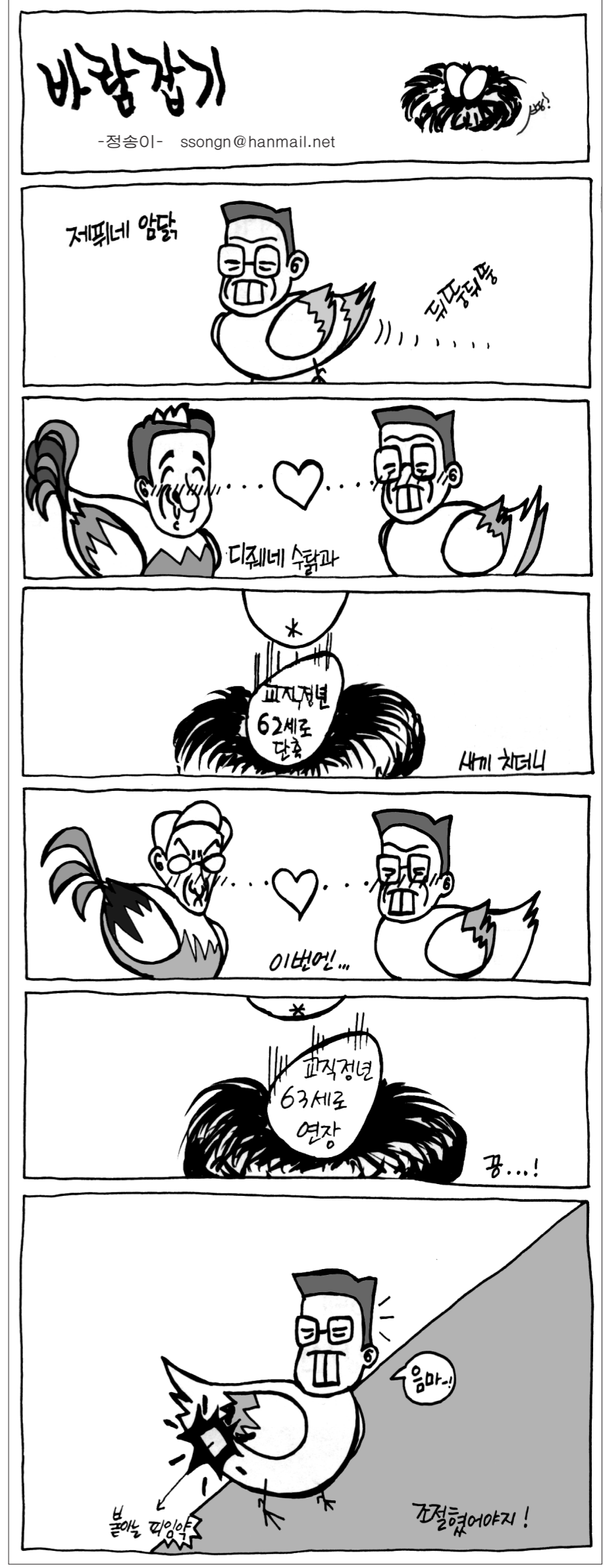
반면 이런 친구들도 분만실에만 들어가면 어느새 얼굴이 활짝 퍼지곤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갓 태어난 새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조 어린 아이의 몸과 퍼질 듯 말 듯한 눈은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분만실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난 후 다른 일에 매달리던 왠지 모르게 수월하게 느껴진다.

아울러 환자를 비롯한 병원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이 더해지면 실습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격려의 말 한 마디를 건네는 사람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이들이 있기에 나와 친구들은 앞으로 더욱 힘을 내 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유미 (의과대 간호3)



### 언어연구교육원 겨울특강 프로그램

| 영어회화   | Writing & Speaking   | Screen English | 독해를 위한 대학 영문법 | CBT TOEFL     | 일본어           |
|--|--|----------------|---------------|---------------|---------------|
| 9:00 - 10:30<br>11:00 - 12:30<br>1:00 - 2:30(초급) | 11:00 - 12:30(초급)<br>1:00 - 2:30(중급)   | 11:00 - 12:30  | 1:00 - 2:30   | 11:00 - 12:30 | 11:00 - 12:30 |
| 정원 13인   | 13인  | 20인            | 30인           | 30인           | 13인           |
| 강의 시간  | 1차 : 2001년 12월 17일 ~ 2002년 1월 15일 (4주)<br>2차 : 2002년 1월 28일 ~ 2002년 2월 26일 (4주)                              |                |               |               |               |
| 강의 1차 개설 2차                                      | ○  | ○              | ○             | ○             | ○             |
| 수강료 (일반 8만원)                                     | 9만원 (일반 10만원)  | 7만원 (일반 8만원)   | 7만원 (일반 8만원)  | 7만원 (일반 8만원)  | 7만원 (일반 8만원)  |
| 접수 기간  | 2001년 11월 26일 (월) 부터   |                |               |               |               |
| 문의 및 접수  |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해피관 1층)<br>전화: 2260-3470/1 팩스: 2260-3691<br>E-mail: today@dongguk.edu http://today.dongguk.ac.kr |                |               |               |               |

- ▶ 90분 강의 주 5일 수업
- ▶ 100% 출석 시 다음 특강 20% 할인
- ▶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 2과목 동시 수강 1만원 할인

★ 언어연구 교육원의 겨울특강 EVENT ★  
선착순으로 등록하시는 10분에 한해 OXFORD 영영사전을 드립니다!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 2001 겨울학기 어학특강

- 접수 기간 : (정시접수) 12월 3일(월) ~ 12월 14일(금)  
(추가접수)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강의 기간 : 12월 17일(월) ~ 2월 8일(금) : 8주강의
- 공개강의 및 환불 기간 : 12월 17일(월), 18일(화), 19일(수)
- 접수 장소 : 구내서점(다량관 지하)  
(단, 아카데미TOEFL 강좌는 학생복지위원회, 소수집중 TOEIC 강좌는 동국관 앞에서 접수)
- 강의명 및 강의

| TOEFL      | 강의명 / 수강료                               | 강의시간             | 강의실  |
|------------|---|------------------|------|
| TOEFL      | 아카데미TOEFL (실전문제 풀이) / 100,000원 (교재포함)   | 오전 10:00 ~ 11:20 | L205 |
|            | 시사 안박사 TOEIC / 30,000                   | 오전 10:00 ~ 11:50 | L301 |
| TOEIC      | 시사 TOEIC 터미네이터 / 30,000원                | 오후 12:00 ~ 1:50  | L301 |
|            | ECC TOEIC (실전문제 풀이) / 30,000원           | 오후 12:00 ~ 1:20  | L407 |
| 기타         | WORD SMART I + II / 30,000원             | 오전 10:00 ~ 11:50 | L201 |
|            | 백서스 영어순해 / 30,000원                      | 오후 12:00 ~ 1:50  | L201 |
|            | 시사 조금 일본어 / 30,000원                     | 오전 10:00 ~ 11:20 | L407 |
|            | 원자 2000 / 40,000원                       | 오전 10:00 ~ 11:50 | L401 |
| 소수집중 TOEIC | TOEIC 집중반 I / 90,000원 (교재포함)            | 오전 10:00 ~ 11:20 | L202 |
|            | TOEIC 집중반 II / 130,000원 (교재포함)          | 오전 10:00 ~ 11:20 | L204 |
|            | TOEIC 집중반 III / 130,000원 (교재포함)         | 오전 11:30 ~ 12:50 | L204 |
|            | TOEIC R/C 집중반 (+L/C책심) / 90,000원 (교재포함) | 오전 11:30 ~ 12:50 | L202 |
|            | 고득점 대비 TOEIC 문제풀이반 / 90,000원 (교재포함)     | 오전 10:00 ~ 11:20 | L203 |
|            | TOEIC 실전 문제풀이반 / 110,000원 (교재포함)        | 오전 10:00 ~ 11:00 | L205 |

서울캠 학생복지위원회

### 달하나 천강에

## 따뜻한 미소



박종희  
관광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최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하는 검찰과 국정원 간부들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비호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기사보도, 그리고 자신의 높은 업적평가를 위하여 성적이 떨어지는 자기 반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와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쌀값하락으로 데모하는 농민들, 남편의 폭력과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한달에 천명 정도의 부인이 가출한다는 소식까지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분위기는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두려움과 분노, 무력감 그리고 외로움이 엄습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 문제의 깊은 뿌리는 바로

나 자신의 이기심에 있다.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너의 희생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너의 불행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기심 말이다. 내가 지금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남이 갖고 있고,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에는 미소짓게 만드는 일이 많아 다행이다. 부모님을 보살피면서 곳곳이 살아가는 한 어린 소녀의 사연을 들으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고, 가끔씩 미소로 손짓해 불러 자살자를 우려내 대접하는 스님과 마주하고 앉아 허허로운 웃음을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친 세상이 저 멀리 물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원성스님은 마음의 문안에 살고 있는 하늘을 맑은 아이를 만나 고운 미소를 지어 보라고 말한다. 억지 웃음이나 호탕한 듯 떠벌리는 웃음 대신 말이다.

나는 오랜 시간 강단에 서면서 안타깝게도 집안의 어려운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아픔과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의 슬픔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슬픔에 꺾이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웃음으로 가득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 '문화의 창'에 비친 아프간의 아픔

## 전시회·축제 등 반전과 평화 위한 행사 계속돼야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 아비규환하는 화약 냄새 소용돌이 /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축축히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잡는 아가야'

1965년 발표된 정한모 시인의 '전쟁과 나비'에서 나비가 겪은 전쟁의 비극은 비록 그것이 꿈일 망정 온몸이 축축해지고 기진맥진해질 만큼 무섭고 어지러운 것이었다. 피로 얼룩진 20세기를 떠나보내는 세계는 이처럼 '전쟁'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유라시아 대륙 저편에서 전쟁에 의해 많은 아프간 사람들의 인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히고 있는 21세기 벽두, 한국에서는 반전과 평화를 위한 문화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6일부터 가나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戰時)중 전시(展示)중(on the war, on the show)'. 전시(戰時)란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을 뜻하는 것으로 전시회 이름만으로도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떠한 통계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아프간 사

람들의 상태는 심각하다"며 아프간전쟁을 비판하는 작가 안성규씨는 작품을 통해 미국의 오만함과 폭력성을 꼬집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전시장 한 가운데 아와 습터의 파라솔과 의자. 작가는 원래 놓여져 있던 파라솔에 성조기와 아프간 침공시 쓰인 보잉 전투기 모양이 그려진 천을 덮어놓았다. 우리의 습터를 보호막처럼 지키고 있는 나라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전하기 위해서다. 평소 쓰이던 습터까지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작가의 위트는 보는 이로 하여금 미국의 그림자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왔는지를 스스로 자문하게 한다.

한편 인권에 대한 뼈저린 기억을 지닌 도시, 광주에서는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문화행사를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해 깊은 의미를 남겼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평화와 생명, 그 아름다움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년 1424축제'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전쟁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여 인상적이었다. 이는 많은 반전·

평화 행사 중에서도 수능을 마치고 자칫 헤이해 질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각자의 삶으로 끌어당겨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그밖에도 전국의 모든 수녀님들이 아프간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며 평화와 반전을 기도하는 '고리기도'는 일반인들에게 종교인들의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아프간은 지금 전쟁중이다. 미 국방부의 전투계획, 빈 라덴과의 술래잡기와 같은 정치졸다라기가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인 지금, 800만의 아프간 사람

들은 그림자처럼 죽어가고 있다. 펜이 칼을 쥐고 향기가 무사를 따르게 하는 것처럼 '문화'의 힘은 부드럽고 강하다고 하지 않은가. 삶 속 깊이 스며든 문화는 아시아 저편의 전쟁을 각자의 아픔으로 전해줄 위력을 분명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평화'는 '존재'만큼이나 당연한 것이라는 합석현 선생의 말씀이 아프간이나 한반도 등 모두의 땅에서 실현되는 그 날까지 이를 위한 문화적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 자은소식

### 연극영상학부 졸업작품제

서울캠 연극영상학부가 각 전공별로 졸업작품전을 연다.

먼저 연극전공 졸업예정자들은 안톤 체홉의 원작 '벚꽃 동산'을 무대에 올린다. 안톤 체홉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벚꽃 동산'은 남러시아에 위치한 벚꽃 동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세대간 갈등을 그려 시대를 막론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영화영상전공 졸업예정자들은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를 선보인다. '이봐요, 무얼 찾고 있나요' 외 19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이번 영화제는 생활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물, 다른 시각에서 본 우리들의 모습 등 신선한 주제를 다뤄 남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한결 무르익은 작품들과 아직 식지 않은 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벚꽃 동산 : 오늘(26일)부터 다음달 1일,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영화제 : 다음달 12·13일, 시내극장에서. 다음달 14·15일, 학림관 소극장에서. 문의 2260-8753

### 음악 비디오 감상회

경주캠 음악 동아리 '메탈 에이지'가 열다섯 번째 뮤직 비디오 감상회를 가진다. 이번 감상회는 네오펑크의 물결을 몰고 왔던 Green Day의 'Basket Case'를 시작으로 서태지의 'Feel the Soul' 등 총 18곡의 뮤직 비디오가 상영될 예정이다. 화면 속의 주인공이 되어 락 음악 세계로 빠져 보는 이색적인 시간이 마련된다.

오는 27일 오후 6시, 원효관 소강당 1에서. 문의 054)770-2787

### 애오라지 정기공연

경주캠 한의과 대학 극단 애오라지가 작품 'NewYork Plaza Hotel'을 무대에 올린다. 열아홉 번째를 맞은 이번 공연은 작가 닐 사이먼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뮤릴과 제스의 재회로 시작된다. 사랑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29일 오후 6시·30일 오후 2시, 6시. 원효관 소강당 1에서. 문의 018-574-3412(이진석)



## '밥줄'만은 빼앗길 수 없다!

제때로라는 복수영감이 자신의 적적함을 채우기 위해 만든 나무인형 '피노키오'. 인형극단에 팔려가고 어찌어찌 해 고래 뱃속으로까지 들어가는 피노키오는 동화 속에서 사사건건 말썸이나 부리는 사고뭉치로 나온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피노키오의 행동이 결코 말썸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피노키오처럼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부르짖는 아들이 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그대로 담은 영화가 있다. 바로 지난 98년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당한 식당 아주머니들의 절절한 투쟁을 그린 다큐멘터리 '밥·꽃·양'이 그것이다.

카메라 렌즈는 지난 98년 '울산 현대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현장

을 쫓고 있다. 그 속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와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노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식당 아주머니들이 있었다. 이어 '최소한의 정리해고'라는 회사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인 현대노동조합 집행부와 이 사실에 거세게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내 차디찬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이어나가는 '밥하는 아주머니들'의 외로운 싸움이 카메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밥'하는 아주머니들이 투쟁의 '꽃'에서, 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를 위한 하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화 '밥·꽃·양'은 지난 9월 울산인권영화제의 상영이 취소되면서 '인권'과 '검열',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거론되며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현재 일고있는 논쟁은 이미 7, 8월에 '밥·꽃·양'을 상영하기로 했던 울산인권영화제의 집행부 측에서 '외부의 문제제기'를 이유로 상영 이전에 '사전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밥·꽃·양'의 제작팀은 '인권영화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전검열'이라고 강하게 반발, 상영을 거부해 근 3개월에 걸쳐 네티즌과 시민단체 사이에 뜨거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화제를 기획한 울산인권연대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영화제 사이트를 폐쇄하고 영화제의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애초부터 '밥·꽃·양'의 상영을 결정한 바 없으며 사전검열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발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영화 '밥·꽃·양'은 밥하는 아주

머니들의 인권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밥줄은 포기할 수 없다'는 한 아주머니의 말처럼 현재 그들에게 일 자리가 곧 밥줄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영화는 말하고 있다. 식당 아주머니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다 넓은 의미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피노키오가 '그냥'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했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인간다움의 기본이라는 것을 바로 이 영화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매체비평

#### 연극 편

#### 버자이너 모놀로그

“금기의 언어로 뿜어내는  
당당한 여성의 성”



여성의 성기를 패미니즘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

여자의 성기를 지칭하는 우리말은 편협한 금기어이다. '버자이너 모놀로그', 작품은 사전적인 정의부터 시작하여 분명한 신체의 한 부분임에도 입에 담기 힘든 그 은밀한 부분에 의문을 던지면서 관객의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지난 8월 성황리에 마친 '버자이너 모놀로그'가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주최측은 동일하지만 연출과 배우 그리고 극장도 바뀌었고, 그 중심내용이야 변함없지만 연출의 섬세함이 더해졌다. 이전 공연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연극이라는 매체를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 공연은 보다 유연하게 연극의 매체적 특성과 맞물려 승화된 듯하다. 관객과 함께 하려는 공간개념이 그저 관념적인, 부분적 현상뿐만 아니라 나타났던 저번 공연과 달리 이번 공

연은 관객과 가까워져 더욱 열린 공간이 된다. 또 문화가 다른 원본 텍스트를 가공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관객에게 밀어 넣어 충격요법 차원의 강렬한 인상만을 남겨준 지난 공연에 비해 이번엔 비교적 우리나라 관객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깃발의 여성의 몸을 말할 때 보스니아 내전보다 우리에게 친근한 베트남전, 6.25, 정신대 할머니의 친절한 전황이 더 강한 정서적 울림을 준다. 여성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여배우 혼자 역할변이를 하면서 연행되어지는 작품은 오르가즘이라는 생물학적 욕구를 받아들이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한 부분인 그 곳에 집중하고 느껴보라고 제안한다. 작품은 금기

시된 여성의 욕망을 금기시된 '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성문화의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욕망과 쾌락을 스스로 당당하게 말하고 누릴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여성의 성기에 가해진 폭력과 그 고통으로 짓이겨진 여성들의 절규에 찬 시를 통해 더욱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월경으로 피 흘리던 '재수 없는' 보지가 우리 모두가 머물렀던 생명 탄생의 그 신성하고 경이로운 곳을 말할 때 숙연해진다. 보지는 내 몸에서 이탈된, 수치로 얼룩진 성기가 아니라 욕망이 꿈틀대고 반응할 줄 아는 쾌락이 있는 소중한 곳이며 또한 신성한 곳을, 진지함과 웃음을 매번 교차시키면서 관객을 파고든다. 호기심과 눈총과 눈요기감으로 감지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구멍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도 구체적인, 보지라는 명칭을 수차례 아무렇지도 않게 부름으로써 관객의 막연한 환상을 씻어버린다. 금기가 주는 은밀한 즐거움을 찾는 관객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주제를 어필함으로써, 금기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닌 낮아지지만 너무도 낮은 여성의 보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해진다. 색직한 이미지로 소비되는 배우가 아닌 화장이 없는 맨 얼굴로 마치 배우로서의 가면을 벗은 듯 청량한 보이는 여배우의 모습은 더욱 효과적이다. 작품은 대중성과 시대의 교훈이 잘 교배된, 연극내부 또 하나의 파워임에 분명하다.

김숙현  
연극평론가

# 문학이 날더러 같이 가자 손짓하네

### 문학행사 탐험

## 글이 있는 풍경속으로



책만 펴면 줄음이 쏟아지는 이들도 이제 책 밖에서 문학에 당당히 즐길 수 있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인식됐던 문학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고 이를 창작하는 작가들의 열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문학의 장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교 중문 부근에 위치한 '한국현대문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종합문학관으로 '님의 침묵'의 1954년 당시 출판본을 비롯해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문학도서 2천여권부터 문인 육필원고 1천여점, 이상의 '선'에 관한 '각서'를 표현한 조형물, 문인들의 생각을 표시한 '한국현대문학관 지도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음달 8일에는 우리 문단에 한 획을 그은 시인 서정주와 소설가 황순원의 타계 1주년을 맞아 시인 문정희, 정호승 등이 참석해 추모행사를 갖는다. 또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하 문학의 집)'은 지난달 26일 시인 김남조, 조병화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으며 옛 안기부 건물을 문학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컴퓨터 탐방공간인 장소로 문학인들에겐 특별한 장소다.

### 풍성한 생활속 문학행사 적극적 시민 참여 이뤄져야

특히 이곳은 전시위주인 기존의 문학 행사장과 달리 시민들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수요문학광장'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등 다음달 23일까지 요일별로 열리는 다채로운 개관기념행사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꾸러진다. 지난 14일에 열린 '수요문학광장'은 소설가 박완서씨가 강단에 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학의 집' 과장 이광섭씨는 "문학의 주인은 시민이기에 시민들의 참여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행사 위주로 문학의 집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 7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열리는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역시 우리 문단 대표 작가들과 독자간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을 조성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그동안 조경래, 이만희, 김영하 등 친숙한 작가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문학체험을 독자들과 나누었고 오는 30일에는 문학평론가 유종호씨가 '문학의 즐거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러시아 '푸쉬킨 문학관', 독일 '함부르크 문학의 집' 등 미술관이 박물관 못지않게 문학관이 많다. 이는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문학행사를 즐기는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문학'이 우리에게 한발짝 다가온 지금, 열린 마음으로 가까운 문학행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업데기는 가라

이에 문학계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학계가 먼저 일반인들에게 손을 뻗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이에 따라 급격하게 빨라진 사람들의 사고와 표현욕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기부 건물이 '문학의 집'으로 바뀌는 등 우리 주변 곳곳에 문학관이 생기고, 각 문예잡지나 출판사, 문학단체들이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또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많은 이들에게 문학잡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지난 8, 90년대의 문학잡지가 지난 14일 개간한 '문학·관'을 기점으로 다시금 현실에 맞는 그것을 만들어 낼 것이라 예상된다.

문학이란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강력한 현실적 힘을 갖춘 존재도 아니다. 그

러나 문학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이고, 하나의 구조를 통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문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함께하는 문학

'물수제비 뜨기'라는 놀이가 있다. 잔잔한 호수가 수면 위에 둥글 납작한 돌을 스치듯 던지는 게임으로, 비행접시처럼 날게 던져진 돌이 물 위를 몇 번이나 튕기며 파장을 일으키는지가 승리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문학계가 사람들 마음 속에 던진 둥글 납작한 돌은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까. 그 결과는 문학계와 독자인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문인이 말하는 문학권력

## 권력편에 선 펜, 이제 그만!

최근의 한국 문학계에는 이른바 '문학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와 소설의 죽음을 우려하는 국내의 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인문학의 토대가 빈사상태에 빠져 버렸다는 탄식의 소리가 높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의 문학은 정치적·도덕적·사상적 지도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문화 전반에 대한 문학의 영향력 또한 심한 무력감을 드러내는 듯 하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까지 동서양의 문학이 누리온 그 나름의 신성함과 품격이 무너져버리는 현상과 함께 문학이 시장의 지배 아래 종속되는 문화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문학이 지난 세기 말까지 형성해 왔던 아우라의 해체 또는 탈신비화의 과정과도 다소간 연

관을 갖는다. 문학권력 논쟁은 이런 내우외환의 배경과도 무관할 수 없다. 이른바 최근에 논의되는 문학권력이라는 것은 문화공동체, 저널리즘, 출판상업주의, 패거리 비평, 신인들 단제도나 문학상 같은 문학제도들과 광범위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권력의 실체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푸코의 말대로 권력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 서나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것이 능력이나 영향

력의 영역을 벗어나 지배의 구조를 갖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재생산한다. '인더 조선' '창작과 비평' '민족작가회의'에 대한 비판 등이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한가지 사례로 '창작과 비평'을 둘러싼 문학 공동체의 집단이기적 배타주의는 과거 민주화를 위한 빛나는 투쟁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오만함과 상업주의적 이익에 대한 강한 집념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그 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권력논쟁이 보다 내부의 정황에 근거를 두고 외부로 확산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문학에 가해지는 불상사도 적지 않다. 이른바 작가 이문열씨가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 가령 책장례식같은 것도 그런 사례의 하나이다. 이 분서갱유식 만행은 전례가 없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청년층의 파괴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충격 중에서도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다.

그러나 문학의 운명은 인간과 언어가 존재하는 한, 비록 문학의 신성성과 아우라의 해체가 진행된다 해도, 상업주의 문화의 논리가 문화 시장을 장악한다 해도 문학은 그것과 싸워 나가는 인간공포의 전시일 수밖에 없다.

문학적 다원주의를 회복하는 일, 공정한 비평이 패거리 비평을 극복하는 일, 문학제도가 문학의 논리로 회복되는 일 등이 성취된다면 문학의 미래는 그다지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문학은 인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초월의 저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기삼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문학적 다원주의의 회복 공정한 비평의 안착으로 문학의 논리 회복해야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을 하는데 타자가 느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간결한 채팅 용어가 필수이며 제대로 된 용어는 찬밥 신세다. ▲얼마전 마감된 서울대 박사과정 모집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대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속출하고 있으며 석사과정까지 함께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대의 경우 사회대의 경쟁률이 0.46 대 1로 가장 낮았고 인문대가 0.65 대 1을 기록했다. 미달 사태가 심각한 분야는 기초학문으로 박사 학위 취득 후에도 전공의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문은 국가 차원에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한다.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속성'으로 키워 낼 수 없는 게

바로 기초학문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의 상당부분이 그 나라가 지난 연구역량에 좌우되는 시대다. 이런처럼 대학원이 반 공백 상태가 되면 대학의 연구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이 때늦은 후회로 사이버 공간의 잘못된 채팅문화에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세종대왕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고귀한 유산인 한글이,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우리

나라 언어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학문정책을 시급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때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대학에 돈을 지원할 때 실용적인 학문위주에서 벗어나 기초학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시급히 보여야 한다.

최창호 대학부장  
windy@mail.dongguk.ac.kr



### 메아리 '기초'의 빈자리

▲'방가(=반가워요)~' '즐렌(=즐거워 게임하세요)' '넵 한다(=너무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채팅용어 사용 이유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31.9%가 '빠른 타자를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는 네티즌들이 채팅을 하는데 있어 언어의 간결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전달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성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을 하는데 타자가 느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간결한 채팅 용어가 필수이며 제대로 된 용어는 찬밥 신세다. ▲얼마전 마감된 서울대 박사과정 모집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대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속출하고 있으며 석사과정까지 함께 감소하는 추세다.

세소식

문학이론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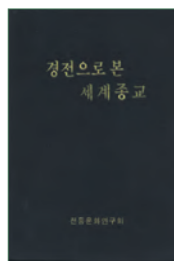
영국의 문예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테리 이글턴 교수가 쓴 '문학이론입문'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제2판에서는 초판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 이전 판에 없었던 '발문'을 새로이 추가해 페미니즘·탈식민주주의·신역사주의 문화론에 관한 10여 년 간의 변화 양상을 재조명하고 있다.

문학이 사회 비판의 도구이자 표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문학이론의 고전서.

테리 이글턴 저/ 김현수 역/ 인간사랑/ 정가 1만3천원.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 세계 7대 종교를 총망라한 책이 출간되었다.

각 종교계의 학자가 참여해 개요를 붙이고 경전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 종교 자체에 숨겨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정종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널리 퍼져있는 요즘, 다른 종교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것. 김용표의 6명/ 전통문화연구회/ 정가 6만원.

안티 다이어트



국제 체형인정협회의 공동의장인 린다핀(Lynda Finn)이 자기의 신체에 대한 죄의식을 멈추고 스스로 행복해지라는 메시지를 담아 책을 펴냈다.

자신의 체형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되찾도록 조언하고 있는 이 책은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 줄 건강한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린다 핀 저/ 도서출판 북아이/ 7천 800원.

버자이너 모놀로그

여성의 성(性)에 대한 통쾌하고 신랄한 고백을 테마로 한 작품이 무대에 올려진다. 진우예술기획에서 마련한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그동안 감춰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성에 대해 새롭게 조망한다.

특히 토코쇼 형식의 도입과 여성계 유명인사를 비롯한 다양한 패널과의 인터뷰는 관객과 무대 사이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하다.

다음해 1월13일까지. 7시30분(화·목)/ 4시, 7시30분(금·토)/ 4시(일)/ 월 휴. 대학로 컬트홀에서. 문의 516-1501

작은 상자 속 체험



문화기획집단 '문화아이콘'이 한 번에 두 가지의 연극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20세기 최고의 사실주의 작가라 불리는 안톤 체홉의 희곡 2편이 '작은 상자 속 체험'으로 묶여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올 겨울 코믹한 로맨틱 코메디 '뽀'와 한 3류 가수의 삶을 그린 '백조의 노래'로 단막극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는 건 어떨까.

다음달 16일까지. 7시30분(화·금)/ 4시30분, 7시30분(토)/ 4시30분(일)/ 월 휴. 대학로 단막극장에서. 문의 762-0810

오! 해피데이



올해 서울공연예술제에서 뮤지컬 대상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오! 해피데이'가 연장공연으로 다시 관객을 찾아왔다.

창작 뮤지컬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음악을 좀 더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해 음악 코드까지 영입했다는 이번 작품은 단편적인 사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다음달 31일까지. 7시30분(화·금)/ 4시, 7시(토·일·공휴일)/ 월 휴. 소극장 인간에서. 문의 3444-3033

국악공연



극단 두두리가 전통음악 그리고 몸짓의 신명과 변화를 보여줄 국악 무대를 준비했다.

국악과 풍물놀이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질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것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두두리인들의 창작에 토대를 둔 유일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데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묵은 한해를 잊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명의 기운을 북돋아줄 흥겨운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26일까지. 6시30분부터.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문의 (054)743-3855

해외대학가는 지금 - 또 다른 테러

테러 이후 안보 빌미로 한 신원조사·감시 강화  
공권력의 테러, 소수에 의한 다수의 인권침해 우려

요즘 독일 대학에서는 강의에서건 세미나 석상이건 학생들의 사사로운 모임에서건 간에 늘 대두되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이다.

강의계획서는 이미 테러가 있기 서너달 전에 결정된 것들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지라 교수들이 서둘러 새로운 테마들을 끌어들이고, 미국의 패권정치와 이념문화 관련 강의들, 그리고 문명의 충돌과 적대감을 소재로 한 수업들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맹방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아프리카노스단 전쟁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독일이 져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점, 그리고 약 5만 명에 달하는 독일 내 회교계 유학생의 숫자 등을 감안하면 대학생들의 이런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모른다.

대학가에서 테러용의자를 색출하는 요령.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전파사용료를 내고, 성적이 좋은 외국인. 이 기준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무역센터 테러조종사 중 한 명이 함부르크대학에서 유학한 사실이 밝혀진 후 독일 내무부에서 내놓은 것이다.

어이없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다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공과계열의 이슬람 유학생들은 이미 수사의 표적이 되었다.

많은 대학들이 이미 외국 유학생들의 자료를 해당 범죄관리청에 제공했고, 심지어 두이스부르크의 한 대학은 빈 라덴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자료들을 외국에 첩보기관에 넘겨주기까지 했다. 여기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문과 분노로 반응한다.

대규모로 학생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것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해서도 별반 도움이 안되며, 사실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자료들을 짜깁기하게 돼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직면한 위협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락되는 개인신변 자료의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법학을 전공하는 몇몇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삼아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신원조사의 위험은 비단 이슬람계 유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많은 독일 학생들은 현재상황을 방지할 경우 자



미국 테러이후 강화된 감시체제는 독일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신들 역시 늘 감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의 불안감은 지난달 쉐리 내무장관이 국정청, 경찰청, 검찰청, 국경수비대 등 전 국가조직이 개인들의 신원자료를 공유하는 것과 신분증에 지문날인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물론 이 법안은 막대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안전을 빌미로 한 신원조사와 감시

가 얼마나 끔찍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는가를 한국의 근·현대사는 자명하게 보여준다. 독일 역시 히틀러의 나치 정부 하에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했음에도 틀림없지만 시간은 값비싼 역사의 교훈을 각각의 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유난히 추운 초겨울. 하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 혹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테러에 대해 여는 때보다 더 분주히 움직여야 할 때이다.

서창훈 (정의 96출·독일 뮌스터대 유학생)

동아리 탐방 - 경주캠 화이트 엘레펀트

포기하지 않는 젊음으로 '끊임없이' 달린다  
꾸준한 노력으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성장해

어디로 뭘 지 모르는 공과 20kg이 넘는 거대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질세없이 운동장을 질주하는 이들이 있다. 경주캠 유일의 미식축구 동아리 화이트 엘레펀트 회원들이 바로 그들.

본교의 상징인 하얀 코끼리를 팀 명으로 내세울 만큼 자신 만만한 이들은 지난 94년 대구·경북 미식축구협회의 도움으로 보호장비 지원을 받고 창단식을 치렀다. 미식축구와 축구의 차이를 공과 유니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흔히 미식축구를 과격하고 무식한 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 운동을 즐기는 25명의 하얀 코끼리들은 미식축구를 '인류 최후의 스포츠'라고 칭한다.

슬쩍 보기에라도 몸싸움이 치열한 이 스포츠에서는 경기 분석력과 정확한 판단력 이어달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냉철한 지성과 남성 특유의 격렬함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이 운동이 '인류 최후의 스포츠'라고 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러나 미식축구에 이토록 열심인 회원들도 '블랙' 즉 몸을 부딪치는 거친 기술에 잔 상처가 끊이지 않는다. 때로는 큰 부상을 입고도 팀 연습에 참여하는 회원이 있는데 이들을 보던 고재학(생물3) 회장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내기 힘든 마약 같은 운동"이라며 미식축구의 매력을 한껏 자랑하기도 한다.



자칫 단순해 보이기 쉬운 미식축구는 고도의 경기 분석력을 요하는 스포츠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인지 화이트 엘레펀트는 지난해 대학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랜 노력 끝에 진자 대학 미식축구 리그에 도달한 것이다. 4년 전 정식 동아리가 된 후에도 10여 만원의 지원금으로 구급약이며 몇 십 만원씩 하는 보호구와 경기참가비를 충당하지 못해 애대우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 스스로도 대견해질 만한 성과이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니다. 올해 치러진

춘·추계리그의 결과가 말해주듯 1부 리그가 절대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회원들은 "우리는 단지 승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라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한다.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치열한 경기로 다져진 냉정함과 안목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 특유의 대범함과 끈기가 언젠가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줄 것을 예감해 본다.

신정환 기자 sjh10t@mail.dongguk.ac.kr

**손것으로 나누는 사랑 IV**

"따뜻한 차 한잔 어때요?"

**따뜻한**  
양손을 배위에 대고 위로 올린다.

**차 한잔**  
오른손 검지로 코를 가리킨 후 컵을 권듯 돌리게 만든 왼손 안에 오른손 검지로 차를 섞는 듯 두어번 돌린다.

**함께**  
검지만 편 양손을 가운데로 모은다.

**하실래요?**  
컵을 권듯 돌리게 만든 오른손을 무엇물 마시는 듯 기울인다.

오른손 검지로 관자놀이를 가리킨 후 손을 펴서 앞으로 내민다.

(제공: 손짓사랑회)

독자광고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   |                                     |
|---|-------------------------------------|
| 월 | 철치김치찌개(1300)                        |
| 화 | 닭고치구이(1500) 미트소스볶음밥(1500)           |
| 수 | 육개장(1500)                           |
| 목 | 고구마카레라이스(1300) 오징어떡볶음(1500)         |
| 금 | 버섯우동(1500) 두부김치(1500) 회덮밥(1500)     |
| 토 | 고치우동(1500) 치킨가스(1500) 순두부찌개(1500)   |
| 일 | 동태찌개(1500) 미트불탕수(1500) 쇠고기미역국(1500) |

(단위: 원)

동국대 창작 음악동아리 '몽개구름' 창립 10주년 정기공연

장소 : 학생회관 5층 소극장  
날짜 : 11월 30일(금) 오후 6시 ~ 12월 1일(토) 오후 4시

동창회 각 지부 송년행사 안내

| 행사주관단체        | 시간              | 장소               |
|---------------|-----------------|------------------|
|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 12. 13(목) 19:00 | 앤버서더 호텔 2층       |
| ROTC 총동문회     | 11. 29(목) 18:30 | 육군회관(삼각지)        |
| 불교학생회동문회      | 12. 1(토) 17:00  | 불교방송국 지하식당(미포)   |
| 법과대학동문회       | 12. 6(목) 18:30  | 동국대 상록원 교수식당     |
| 광주동문회         | 12. 12(수)       | 문의: 017-423-7901 |
| 경영대학원동문회      | 12. 17(월) 18:30 | 63빌딩 국제회의장(여의도)  |
| 부산동창회         | 12. 18(화) 18:30 | 부산일보사 10층        |

2002 동학 아마야구리그

동학리그에 함께 하고픈 새로운 팀을 모집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동학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afe.daum.net/dongakleague

동학아마야구회

20주년 기념 東墨書藝展

개막식 - 2001년 11월 25일(일) 오전 11시  
전시기간 - 2001년 11월 25일(일) ~ 11월 27일(화)  
전시장소 - 서라벌문화회관  
주최 - 동국대학교 동문회  
후원 - 동국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동국대학교 동문회, 졸업동문회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   |                           |
|---|---------------------------|
| 월 | 경상도닭은국(1300) 마파두부덮밥(1500) |
| 화 | 제육덮밥(1600) 치킨가스(1800)     |
| 수 | 만두애문탕(1300) 돈가스(1500)     |
| 목 | 삼색볶음밥(1600) 해물덮밥(1800)    |
| 금 | 콩나물국(1300) 웰치볶음밥(1600)    |
| 토 | 불고기덮밥(1700) 철치회덮밥(2000)   |
| 일 | 북어채국(1300) 오징어숙회비빔밥(1600) |
| 월 | 짜장덮밥(1700) 비후가스(1800)     |
| 화 | 아육국(1300) 카레라이스(1600)     |
| 수 | 소고기볶음밥(1700) 잡채밥(1800)    |

(단위: 원)

경주캠 교직원식당 차림표

|   |                      |
|---|----------------------|
| 월 | 무항복이탕·돈육두반장(2500)    |
| 화 | 양송이김치덮밥(3500)        |
| 수 | 재현국·봉추김밥(2500)       |
| 목 | 생선가스(3000)           |
| 금 | 육개장·해물숙회(2500)       |
| 토 | 갈비탕(3500)            |
| 일 | 돼지뼈우거지탕·양미리무조림(2500) |
| 월 | 김밥·국수(2500)          |
| 화 | 고추장찌개·삼치구이(2500)     |
| 수 | 비빔밥(2500)            |

(단위: 원)